

第294回國會
(定期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10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0年11月23日(火)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2011년도 예산안
 - 가. 고용노동부소관
-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고용노동부소관
-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審査된案件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
1. 2011년도 예산안	1
가. 고용노동부소관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가. 고용노동부소관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8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성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방건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14분)

○위원장 김성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부가 제출하여 11월 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심사할 예산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해서 오늘 상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 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현재 위원회에 계류 중인 환경 및 노동 관련 법률안들에 대한 심사는 차후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심사 일정을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가. 고용노동부소관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고용노동부소관

(10시15분)

○위원장 김성순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근로자복지진흥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존경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 소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올해의 고용노동정책은 적극적 일자리 대책을 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노사문화를 선진화하며, 선진국 수준의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하기 어려운 청년·여성·고령자·근로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리고 찾아 주는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를 잃거나 잃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 당당한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직업능력 향상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 7월 시행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연착륙시키고 내년 7월부터 적용될 복수노조제도를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중심의 고용친화적 노사관계를 위한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영세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의 확대 적용과 주40시간제 도입, 사내 하도급 대책 등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2일에는 범정부적인 '2020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여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과제와 실천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10월 14일에는 그 후속 대책의 하나로 청년 고용 대책을 담은 '청년 내 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고용노동부는 국민들의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실현되고 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멍니다.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내 일'의 희망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경기가 회복되면서 고용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은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더 나은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정책의 주관부처로서 정책 운용의 틀도 새로이 짜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담아 2011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으로 12조 66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 12조 2935억 원에서 3736억 원, 3.0%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총지출은 1조 3231억 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2575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억 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43억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69억 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5억 원입니다.

한편 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의 운용 규모는 여유자금 등을 제외한 총지출 기준으로 11조 3440억 원입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고용보험기금 6조 488억 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조 6980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2936억 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2201억 원, 근로자복지진흥기금 835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정책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의 패러다임을 고용친화·지역주도·시장중심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일꾼과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이 주도하여 현장밀착형 일자리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를 적극 지원하고, 풀뿌리형 사회적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기업의 자발적 고용 창출 노력을 뒷받침하면서 취업 지원 서비스의 민간 위탁과 산업 수요에 걸맞은 인력 양성을 확대하는 등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2020 국가고용전략'과 '청년 내 일 만들기' 제1

차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고용 대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여 실업자와 산재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하루 빨리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모성 보호와 육아 지원을 확대하여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키며, 임금피크제를 확산시켜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복돋우겠습니다.

상생의 선진적 노사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작업장 혁신을 가속화하고, 근로여건 개선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병행하여 일자리 창출의 기반도 든든히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고 일을 통해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기탄없는 지적과 유익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필 차관과 조병기 정책기획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때문에 이 자리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입니다.

이재갑 노사정책실장입니다.

조재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재홍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입니다.

정지원 직업능력정책관 직무대리입니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입니다.

나영돈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입니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입니다.

이성기 공공노사정책관입니다.

한창훈 국제협력관입니다.

박종길 대변인입니다.

정철균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정종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인사)

다음은 자리를 함께 한 우리 부 관련 공공기관장입니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입니다.

유재섭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입니다.

노민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입니다.

김종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입니다.

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입니다.

허병기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이사장입니다.

전운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입니다.

(공공기관장 인사)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11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조재정 기획조정실장 조재정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의 1쪽부터 10쪽까지 고용노동부 및 산하 공공기관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안의 편성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책 여건 전망입니다.

경제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내년도 실업률은 3.5% 수준에서 안정되고, 취업자 수 증가도 연평균 20만 명 내외에 달해 노동시장은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다만 취업자 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청년 및 취업애로계층의 취업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관계는 내년 7월 1일 복수노조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불안요인이 상존하나 전반적으로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의 편성 방향은 고용정책 분야에 있어서 고용친화·지역주도·시장중심으로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청년 및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별 취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수요자 및 기업친화적으로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노동정책 분야의 경우 전임자·복수노조제도를 연착륙시키고 작업장 혁신 등 선진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가며, 산재근로자의 사회 복귀 지원과 산업재해 예방활동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 편성상의 주요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계 규모는 19조 8563억 원으로 금년 대비 2203억 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총 지출규모는 12조 6671억 원으로 금년 대비 37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예산은 1조 3231억 원으로 금년 대비 1480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금은 11조 3440억 원으로 금년 대비 22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주요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고용 친화적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각 부처의 주요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한 고용영향평가센터를 지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도의 일자리정책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친화적 지방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일자리공시제도를 추진하고 지자체의 일자리 대책의 추진성과 등을 평가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별 일자리공시제 추진 등을 위해 시·군별 사업체고용동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노동 통계조사를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예산을 증액하여 지역별 일자리공시제 추진에 따른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풀뿌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방식을 효율화하고 사회적일자리 지원단가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장 중심의 일자리정책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 및 촉진을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의 민간 위탁을 확대하며 공모를 통해 단시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창업 등 민간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청년 고용 및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고용과 관련하여 청년인턴제는 중견기업, 창직·창업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지급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해외취업 연수대상을 확대하고 연수단가도 현실화하겠습니다.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 취업아카데미와 창조캠퍼스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 밀집지역 12개 고용센터에서 민간 취업전문가를 활용한 잡영프라자를 설치하여 대졸 청년층에게 맞춤형·현장형 취업상담과 알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선호 직종에 대한 특화된 직업훈련을 시범 실시하는 취업사관학교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 촉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디딤돌 일자리 사업과 청년·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취업 촉진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에 참여한 취업자에 대해 내년도 지급이 필요한 취업장려수당의 수당액도 반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고령자·여성 등 유휴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비 지원적 성격의 유급근로와 자원봉사가 결합된 사회공헌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촉촉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실직 근로자의 조기 복귀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취업촉진수당이 실직자의 조기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금년도에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체불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은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임금 상승률 등 증액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모성 보호 및 육아 지원 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모성 보호 및 육아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정률제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설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시설 신축 시 설비비 무상 지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 등 임신·출산 여성 고용안정지원금도 증액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57세 이상 정년 퇴직자 등 1년 이상 재고용 시 지원하는 재고용형 제도도 신설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수요자 및 기업 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로 훈련방식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실업자 및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된 기존 유사 사업을 계좌제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훈련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의 경우 산업·지역별 훈련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타 부처 유사 사업을 통합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간산업 등 인력 부족 직종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근로자 능력 개발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주의 재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재직자 훈련과 관련된 타 부처 사업을 통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기능 올림픽 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국제기능진흥협력센터도 건립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것 지금 양이 많은데 요약해서 하세요, 중요한 것만.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조재정 예,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조재정 다음은 생산적 선진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산업 현장의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전임자 및 복수노조제도의 연착륙 지원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 현장 노무관리 개선 지원 예산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겠습니다.

체불근로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 및 사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체불청산지원팀 설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성화하고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재근로자 지원 및 산재 예방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조기 복귀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산재보험급여의 경우 산재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과 산재 장애자의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 최근의 급여 지급 증가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산재근로자의 합병증 등을 예방 관리하고 직업 훈련, 사회심리 재활 등을 위한 지원예산도 적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업환경 개선 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서비스·조선·건설업 등 산업재해 증가업종에 대한 예방투자 확대와 지역 산업보건센터 신규 설치 등의 예산도 반영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보건담당자 교육 및 홍보활동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안전보건 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8쪽 이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고용노동부장관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창희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서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고용노동부 보고가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 검토사항인 청년 관련 예산의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청년 관련 예산의 특징은 직장 체험 등 대학 등에 지원하던 사업을 개편하고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신규사업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를 제외한 기존 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는 점입니다.

2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는데 창업 및 창직을 지원하는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유한 사업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중소기업청 등 경제 부처의 주된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여부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 청년 관련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청년 관련 부서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사업예산의 집행을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용정책사업 중 취업장려수당 지급사업은 저임금 등으로 인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10.6% 증액된 353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2009년 추경예산 편성 시와 2010년 예산 편성 시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취업장려수당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근거로 2011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향후 국회가 가진 예산 심의권을 통해 확정된 의견과 다르게 예비비를 통해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확충사업은 사회서비스 공급을 늘리고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의 세부 사업인 사회적기업 컨설팅 사업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이 대폭 늘어난 2009년도의 집행률이 43.8%에 불과한데 이는 매

출액에 비해 과도한 컨설팅의 지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 감소했고,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수보다 컨설팅을 지원받은 사회적기업이 더 많은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컨설팅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소·중견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은 청년의 중소기업 인턴십 과정에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안은 36.7%가 증가한 1456억 500만 원인데, 이는 중견기업 청년인턴 지원 및 창직·창업 인턴 지원예산이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에 폐지된 후 경제위기로 인해 2009년에 재도입된 제도로서 기업이 정기적으로 채용했을 인력을 인턴제를 활용하여 채용하도록 유도하여 정책으로 인한 순고용 증가 없이 임금 보조금의 혜택을 누리는 사중적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11년 379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청년취업아카데미는 산업과 기업 주도로 청년취업아카데미를 개설하여 대학 재학생·졸업생에게 분야별로 특화된 취업역량을 집중 제고하는 프로그램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화된 취업 역량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대학의 자생력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청년취업아카데미를 통해 인력을 수급 받은 기업은 대기업일 가능성이 큰데 중소기업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취업사관학교 운영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학업중단, 가출 등의 이유로 경제적·사회적·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 청소년에게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경쟁력을 갖춘 직업인으로 육성하려는 것이고 지원 형태는 위탁계약에 따라 민간 직업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렵고 자립을 필요로 하는 취약 청소년들에게는 장기간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더라도 직업의 안정성과 취업률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민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할 경우 과잉 실적평가와 사업 부실 등 우려가 있어

한국폴리텍대학 등의 공공직업훈련의 훈련 과정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민간 이전방식의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이 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평등실현사업 중 모성보호지원사업은 사업주의 여성 고용 기피요인을 해소하고 출산 육아에 따른 여성 근로자의 이직과 경력 단절현상을 방지하며 모성보호급여의 사회 분담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정부내부거래를 통하여 고용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2001년에는 지원 예산이 150억 원이었으나 2006년 이후로는 1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1년 8월에 이 사업을 도입하면서 국회에서는 산전후휴가급여 예산의 50%를 매년 일반회계에서 분담하도록 부대의견을 의결한 바 있으나 급격히 증가하는 모성보호급여에 대해서 정부는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지 않고 있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압박과 함께 모성보호의 사회적 책임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모성보호급여는 이제 정부·사업주·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고용보험의 별도 계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사정책사업 중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사업은 노동단체 등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합리적 노사 관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노동조합의 역할 정립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안은 20% 감액된 29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을 정부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삭감한 것은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는 사업수혜 노동조합만 해도 2009년도 말 기준 연합단체 55개소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우리 노동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정량적 접근에 따라 사업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이 사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측면을 도외시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노동위원회의 기능강화사업은 전년도 사업에다 신규로 교섭창구단일화 운영지원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일반수용비 예산은 위원들의 회의수당·안전검토비 등으로 지출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8700만 원 증액된 30억 7500만 원이 편

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노동부 소관 예산·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는 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회의비 및 안전검토비에 대하여 그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가 있으며 이 사업의 2014년까지의 중기재정 소요 전망을 보면 위원들의 회의수당이나 안전검토비를 인상할 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전년도에 이어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8쪽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2007년 -5764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2006년 9조 3635억 원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금 재원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출 대비 적립금 비율은 기금운용계획상 1 이하인 2010년 0.9, 2011년 0.7로 예상되고 있는데 특히 실업급여 계정의 2011년 지출 대비 적립금 비율은 0.4로 매우 악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고용보험기금사업 통합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예산안에서 고용보험기금 직업능력개발사업은 534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라 타 부처의 신성장동력 인력양성사업의 일부를 통합하고 고학력 청년층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대규모 증액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합 대상인 타 부처의 신성장동력 인력양성사업은 대부분 일반회계 지원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지원 대상도 대학생·대학원생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으로 관계 부처 고유사업의 성격이 강하여 고용보험기금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정책사업 중 고용창출지원사업은 단시간 일자리 도입·확대 등으로 고용 기회를 확대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011년 23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할 예정인데 기존의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특별한

이유 없이 민간에 위탁하여 31억 8500만 원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1개소의 관리비용으로 70만 원의 고가의 단가를 책정하고 있는데 지나친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가 직접 집행하거나 일부 지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민간에 위탁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사업은 종전의 민간우선선정직종훈련 지원과 대한상공회의소 우선선정직종훈련 지원을 통합한 것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공적재원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고 전국에 체계적인 직업훈련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의 인력수요에 부응하고 컨소시엄 훈련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운영 방향이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와 부합하기 위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를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간·전략산업 인력양성의 사업의 중복성 등을 고려한다면 500억 원에 가까운 예산 증액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액 조정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산재보험사업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폐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진폐보상연금을 포함하고 있는 장해급여는 11.1%의 큰 규모로 증액 계상되고 있으나 기초통계 및 추계가 부정확하여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직업재활급여의 경우 제도 변경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제도 변경 첫해인 올해의 집행 실적이 낮아 반복 집행이 부진할 우려가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중 직업능력개발원 운영사업은 장애인 전용 직업능력개발원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 창출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3% 증액된 94억 93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개별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공무원시험 등의 준비에도 1인당 100만 원 이내에서 훈련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원의 공무원·교원임용준비반 운영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훈련교사의 전공별 연수가 대부분 단기로 이루어져 실효성 있는 교육연수체제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전공신기술연수를 현장 중심의 장기연수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근로자복지진흥기금사업 중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사업 운영사업은 2010년 12월 말까지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도 퇴직연금제도를 확대·적용하여야 하는바 사용자의 경영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영세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 재원 마련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체계적인 연금설계 등 공적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 지원이 있어야 하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2011년도에 채용하고자 하는 오퍼레이터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정원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고 향후 퇴직연금 활성화에 따른 정원 확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성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첫 번째 질의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열 위원 수원시 장안구 출신 민주당 이찬열입니다.

장관님,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의사표시를 강력하게 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이찬열 위원 지금 보면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가 나타날 것 같은데 정부의 특별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7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 29개 사내하도급 업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원청업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개 업체는 조사가 끝났고요.

4개 업체, 현대자동차……

○이찬열 위원 전체 다 해야지 뭐 25개 업체만

해 가지고 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전체 다 하는 것은 저희 한정된 인력과 시간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난번에 국감 때 보고드린 바와 같고,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25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일단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4개 업체는……

○**이찬열 위원** 제약된 시간이기 때문에 긴 답변을 들을 저거는 안 되고요.

만약에 특별히 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좀 중요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찬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야 이제 개별 기업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고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정부가 좀 나서 가지고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문제는 대동소이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정부에서 그런 매뉴얼을, 쓸데없는 매뉴얼 만들지 마시고 지금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정말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셔서 그 매뉴얼대로 일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이걸 저희 민주당 홍영표 전국노동위원장께서 다녀오셨기 때문에 아마 자세한 것은 홍 위원님께서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고용노동부 총지출 예산을 보면 기금이 11조 3000억 되고 일반회계 예산이 1조 3000억 정도인데 기금과 예산 비율이 지금 12%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고용노동부의 전체 예산은 19조라고 그러는데 이런 상태가 과연 적정한 상태인지,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노동자들이나 또 일반 사업자나 이런 데서 각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이찬열 위원** 그렇다고 봐야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렇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리고 기껏해야 이 1조 3000억

되는 예산이 정부 예산인데, 재정이고, 이것 어떻게 좀……

내용을 보면, 비근한 예를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일자리창출위원회 고용보험기금으로 190억에서 324억으로 됐고 이걸 또 목적이 일자리창출을 열심히 한 우수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이 돼서 노동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 그것도 노동자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또 사회적기업 육성에서는 일반예산인데 1487억에서 1478억으로 9억이 줄어들었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기금과 일반예산은, 일반예산도 같이 물론 전체적으로는 좀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 육성 같은 것은 직접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이찬열 위원** 그러면 그런 데의 일반예산은 줄어들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일단 늘어나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그런 것이 줄고 또 노동자나 사업자가 낸 고용보험기금에서 예산을 우수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이것 내용을 보면 노동자와 사업주에서 돈을 걷어 가지고 정부기관에다가 인센티브 준다고 생색내는 이런 식의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래서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그와 비슷한 지적이 있을 수 있는 분야가 꽤 있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이찬열 위원** 많지요, 지금. 그 대표적으로 제가 이것 지적한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런 게 있는데 현행 고용보험법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상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이찬열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청년 일자리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국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가 비싼 등록금 내고 졸업을 하면 취업이 안 된답니다. 안 되지요, 지금?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아주 어려운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찬열 위원 어려운 상황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이찬열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취업을 못 시켜 주면, 물론 뭐 100% 정부 책임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취업을 못 시켜 주면 등록금이라도 좀 깎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좀 강력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대학생들 등록금 좀 깎아 주면 안 됩니까, 취업 못한 사람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래서 국회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청년들 학자금, 이런 제도도 만들고 정부로서도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대학교 등록금도 하여튼 인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리고 글로벌 취업지원, 여기도 좀 문제가 많은데 지금 올해 예산이 52억 증액되면 303억입니다, 지금.

그런데 2009년도 실적을 보면 1만 2629명을 알선을 했지만 실제 이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자리를 얻은 사람이 369명입니다. 불과 고작 2.4%인데 이것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무리하게 추진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해외에 한 1200명 정도 취업을 했는데요. 올해는 상당히 실적이 나아지고 있어서……

○이찬열 위원 올해는 얼마나, 몇 명이나 취업이 됐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지금 현재까지 한 1524명, 지난 3년간 실적을 이미 올해 한 해 지금 다 지나가지 않았는데도 훌쩍 뛰어 넘었고요.

결국 이렇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영국처럼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이 좁은 국토에서만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 세계를 무대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꿈을 키워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적극 뒷받침을 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지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이미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해외 지원하면서 10억 달러 지원하면 우리 중국 사람들 10만 명 이민 받아 달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업에 비하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런데 좀 더 그런 내용을…… 뭐 1500명 이상 취업이 됐다니 바람직한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취업률이 낮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취업률을 좀 증대시킬 방안부터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예.

그다음에 또 잡영플라자(Job-Young Plaza)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이찬열 위원 이 잡영플라자 사업을 통해서 청년취업을 좀 증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게 27% 정도, 신문,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해서 응모를 하고 하는 것이 26% 또 가족, 친지 소개로 해서 15%, 이 잡영플라자 사업을 하는 기관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6.8%밖에 지금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 조사가 제가 알기에 금년 5월에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찬열 위원 이게 7월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잡영플라자는 7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잡영플라자가 없을 때 조사를 한 거거든요.

○이찬열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92억 44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이 기간이 짧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공개시험 모집하는 공고 보고 들어가고 신문 또 그다음에 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개로 해서 들어가는데 이것도 확실히 이 실제 집행예산을 92억을 잡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공개시험 등 다른 부분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을 이 사업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알선기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걸 통해서 들어가는 이용률이 최소한 한 2, 30% 정도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그런 검토 예산이 더……

.....
 지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겠고요.

그래서 잡영플라자만으로도 저희들이 취업경로 비율을 한 20%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비율이 낮기 때문에, 공공 또는 정부 재정지원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로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걸 올리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잡영플라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금년 7월에 시작해서.....

○**이찬열 위원** 올해 예산이 좀 조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아니요, 그건 좀 더 오히려..... 주로 지방대학 쪽에 저희들이 추가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꼭 좀 확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찬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청년취업아카데미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이찬열 위원** 이게 뭐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 말 그대로 50개 대학에서 200명씩 한다는 그 자체로 봐서도 대기업에게나 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그 현실과 같거든요. 농후하게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대기업은 그렇게 인력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에다 인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도 보면 이게 의지는 좋습니다. 1680억 신청해 가지고 379억을 받으셨는데 이 자체로만 봐도 대기업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깎인 것 아니냐,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방법을 좀 개선을 해서라도 방편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유형을 세 가지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하거나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함께 하는 것.....

○**이찬열 위원** 중소기업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 사람들 컨소시엄할 그럴 시간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리고 중소기업 단체가 또 주도하는.....

○**이찬열 위원** 이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자, 이제 마무리 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찬열 위원** 국토부에서 지난 8월 11일 날 4대강 사업 관련해 가지고 고용영향평가를 노동부에다 요청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저희 노동부에 요청한 게 아니고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4대강 사업을 고용영향평가의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면 이것 국토부에서 다 가지고 고용부에다가 보고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게 하면 이제 일종의.....

○**이찬열 위원**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가뜰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 예산이 전부 기금 예산인데, 물론 그건 일반회계로 하겠지만, 그런 것 자체도 고용노동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지금 위원님 타당성 조사라든지 예비타당성조사는 공정한 제3자가 수행하기 위해서 KDI에 있는 센터에서 맡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고용영향평가도 뭐 어디서 할지는 모르지만 공정한.....

○**이찬열 위원** 죄송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미 4대강 사업이 2012년이면 끝난다고 그러는데 이제 와 가지고 고용영향평가를 한다는 그 자체가..... 사후 평가하는 겁니까, 지금?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때늦은 감이 있지요.

○**이찬열 위원** 차라리 정확하게 하려면 2012년 6월, 2012년 말 4대강 사업 끝나고 고용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속 편하고 누구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고용영향평가제도 자체가 금년에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찬열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생겨도 이미 이름만 고용영향평가가 아니지 국토해양부 자체 내에서는 이미 이 4대강 사업을 하면 고용효과가

얼마나 있다는 게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34만 개,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건 한국은행의……

○위원장 김성순 이제 마무리하시고요. 보충시간 활용하시지요.

○이찬열 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보충시간에 보충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조금만 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순 그래요?

예, 지금 3분 지났으니깐……

○이찬열 위원 그래서 그런 일자리도 사전에 영향평가를 하라고 해야 될 것이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해야 됩니다, 사전에. 사전에 하라니까 또 그냥 뒤 1년 걸쳐서 사계절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것을 한 3, 4개월 안에 후딱 해치워 가지고 이것 여지까지 입에서 안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부?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고용영향평가를 만든 거지요. 4대강 사업의 34만 명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상의 취업유발계수 곱하기 예산안을 한 거란 말이지요. 그것이 과거 방식인데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좀 더 심층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만든 게 고용영향평가고……

○이찬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사업 전에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게 일이 제대로 되어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희가 선수와 심판을 분리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국토부가 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기관에 맡기고 그걸 고용노동부가 감독하겠다 하는 게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예,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범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관 위원 전반적으로 고용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예산 설정에 있어서 사업 전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그 의심,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난 10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30만 명이 는 것

으로 되어 있는데 잘 하시겠지만 청년층의 실업률은, 일반 취업자는 그렇게 늘었지만 청년실업률은 대개 배 이상 줄어들어서 지금 심각한 실정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실업률은 지금 7.0%로……

○이범관 위원 일반 실업률은 3%대인데 청년 실업률은 7%대에 이르러서 이게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게 위원님, 지금 특히 심각하기보다는 사실 경제위기 오기 이전 수준으로 거의 이제 돌아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한 7%, 이렇게 6%대에 한 10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좋습니다.

금년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86%를 증액한 4700억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과연 이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실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가에 의문이 있어서 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작년도 예산집행 실태를 비추어 봐서 내년에도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 이것은 완전히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도 본예산과 일반회계의 경우에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8700억을 계상을 했는데,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신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에서 19개 신규사업을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금년이지요, 금년.

그런데 이 중에 집행은 42%에 불과한 것 아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이범관 위원 또 고용보험기금 추경을 무려 2조 1500억을 했는데 그 집행이 46%에 불과한 1조 1500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지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엄청나게 무슨 실업을 해소한 것처럼 뺄뺄기를 해 놓고 반도 집행을 못하는 이런 실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완전히 전시행정 아닙니까?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렇게 86% 해 가지고, 고용기금으로 가면 또 더 많이 있는데 내가 장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다음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좀 실질적으로 다 집행될 수 있고 실효성이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백번 옳으신 말씀

이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작년과 올해에 집행이 부진했던 것 등을 감안을 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시기에 또 미흡한 점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효과적인 집행이 돼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법관 위원** 제가 사실은 추경예산…… 추경예산이라는 게 그 해에 다 쓰겠다고 예산 세우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법관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2조 이상 해 놓고서 50%도 안 되는 집행을 해 놓으니 국민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전시행정, 국민을 속이는 전시행정밖에 더 됩니까, 그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위원님, ‘속였다’ 이런 말씀에는 제가 좀 동의를 전반적으로 하기가 어렵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 이 불이 큰불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험을 든 거지요. 추경도 편성하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보험을 들었는데……

○**이법관 위원** 그러면 집행 안 된 것, 작년에 추경 집행 안 된 것 금년에 할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아니요, 제 말씀은 다 행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정부도 노력을 하고 해서 큰불로 번지지 않고 중간 불 정도로 가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준비했던 보험금을 다 안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하는 점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법관 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보면, 집행 관계를 제가 전부 19개 사업을 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내가 따져봤는데요. 잘못된 계획을 세운 것도 많이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것은 맞습니다.

○**이법관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려 그러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법관 위원** 내년도도 고용노동부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많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희망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결과에 가서는 그런 실적이 저조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불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 점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법관 위원** 잡영프라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일부 말씀이 나오셨는데 잡영프라자를 통해서 취업하는 게 15%에 불과한 걸로 되어 있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통계가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또 최근에는 자꾸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법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비실용적인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생각 드는 것이 각 대학에 취업알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이법관 위원** 산학 연계를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효과가 오르지 않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이법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탁상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대학에 연계해서 아까 이찬열 위원님도 말씀하신 취지 중의 일부이기는 한데 그렇게 좀 실효적인 방법을 취해서 차라리 각 대학의 취업운영센터를 지원해 주는 방향에서 같이 하든지 이렇게 좀 실효적으로…… 내가 좀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효과를 내는지 보겠습니다. 자꾸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적인 것을, 같은 일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것 국가 낭비 아닙니까, 국비에?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대학마다 이런 취업 지원을 확산하는 것 자체에 좀 한계가 있고 또 잡영프라자가 대학 말고 고졸 이하 청소년 등도 지원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존의 것을 내실화하고 통합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법관 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예산도 좀 줄이고 하여간 그런 실효적인, 자꾸 제가 말씀드린 실효적인 방법을 찾아서……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것은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법관 위원** 취업사관학교도 여성가족부의 위기 청소년에 대한 대책과 또 중복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지는 않고요. 여성가족……

○이법관 위원 또 이것을 지금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문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될 일이나, 이게.

지금 전문위원회 지적을 적절히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폴리텍대학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데 공공직업훈련 과정이 있잖아요. 기존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자꾸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꾸 그냥 뭐 하나 더 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뭐 굉장히 더 하는 것처럼 하는데 하는 것 보면 중복되고 예산이 과다되고……

내실 있게 좀 고용노동 정책을 해 주십사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희들 맞춤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은 일단 예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자 그런 의지를 키우는 단계고요. 그것을 수료하고 나서……

○이법관 위원 지금 말이지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부처가 각자 경쟁을 해 가지고 비슷한 사업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 현상을 갖고 있는 것을.

그런데 그런 것이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전 부처의 사업을 전부 다 면밀하게, 아까 그것 때문에 운영기관을 하나 두긴 두시는 것 같은데 파악을 해서 중복되고 이런 게 없도록, 이름만 바꾸어 놓고 결국에 가서 보면 비슷한 일을 70, 80% 중복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들이 나타나서……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위원님, 10초 안에 설명드릴게요.

여가부에서 일단 그 프로그램을 수료를 하고 그리고 좀 일할 의사가 있고 다시 사회 복귀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기서, 사관학교에서……

○이법관 위원 알아요. 내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는데 그러려면 여성가족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 군데에다 실효성 있게 해라 이 말이에요. 초기 단계부터 말기 단계 똑같이 해야지 초기 단계는 여성가족부에서 했다가 그것을 고용노동부에서 인계받아서 또 취업 알선해 주고 합니까? 그것을 한쪽에서……

요새 민원도 원 포인트 시스템 아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제가……

○이법관 위원 그런 식의 각 부처 간의 연계된 사업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조정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 취지에 동의하고요.

○이법관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클린사업장 조성 관계도 이게 지금 50인 미만 산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예산은 줄대요, 어떻게 해서.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약간 주는 걸로……

○이법관 위원 그것 왜 그러니까? 왜 줄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게 그동안 시설 이런 것 위주로 지원을 하다가 사람과 기술 위주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침을……

○이법관 위원 오히려 이것은 예산을 좀 늘려 가지고 그리고 또 실효적으로…… 의무를 가진 데가 있지요? 실효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희들 이 사업은 그동안 성과는……

○이법관 위원 오후에 정보위 예산이 있어서 조금만, 한 2, 3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이법관 위원 직장보육시설도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 문제도 금년에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지 예산을 줄인 걸로…… 줄였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예산을……

○이법관 위원 이것은 지금 저출산과 관련해 가지고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 못한 게 이유를 좀 따져봐서 이것은 증액을 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무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실지로 보육시설 만드는 것은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무슨 대체해서 수당을 주거나 위탁하거나 이러는데 오히려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되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저출산을 해결하는 부분의 기초적인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핵심입니다.

○이법관 위원 그런 데서 마인드를 좀 중점적으

로 집중과 선택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실질적인 정책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좀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문제에서 사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고용노동부의 여러 가지 사업이 나열은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현실과 맞지 않아 가지고 실현이 안 되거나 또 다른 부처와 조정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부처마다 전부 고용 문제에 다 신경을 쓰기 때문에 별의별 신규 사업을 다 만드는데 그런 것을 잘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부라고 명칭까지 바꾸셨으니까 잘 조정을 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으로 국민에게 체감 있는 고용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위원님 질문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서 답변을 안 드렸습시다라는 일괄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범관 위원** 예, 그러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우선 직장보육시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여러 가지 규제 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예산 집행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고 올해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서 규제를 몇 가지 완화를 했는데 내년에 그 효과가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금액은 올해 예산안보다는 적지만 올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보다는 훨씬 늘어난 금액이라는 점을 말씀을 올리고 또 예산 집행 실적이 2년 연속 저조한 상황에서 더 편성을 많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예산당국과의 협의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드리고요.

청년사관학교의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 어쨌든 유기적으로 각 부처 간에 연계를 하겠지만 여가부 쪽에서 1단계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나면 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내년에 100명만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가 취업과 관련된 훈련을 좀 해서 취업하는 사람은 취업을 하고 또 그중에서 그것을 마치고 나서도 폴리텍 등으로 진학을 하거나 대학에 진학을 하려는 학생들은 3단계로 폴리텍 쪽에 진학을 하도록 그렇게 맞춤형으로 좀 계획을, 타깃팅을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100명 한번 해 보고 내년에 유기적

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통합할 필요가 있으면 또 적극 통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쓸데없는 욕심을 내거나 이래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범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장관님이 신신하고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이 하신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다만 저도 걱정되는 의미에서 제가 일종의 참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이범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범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容九 委員** 취업장려수당 사업에 대해서 여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金容九 委員**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취업장려수당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저임금 등으로 인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빈자리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구직난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38억에 대비 310.6%가 증액된 353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한번 더듬어 보니까, 2007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25.8%, 2008년도 26%, 2009년도 24.5%, 3년간 평균 한 2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려수당에 대한 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적 상승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장관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지 또는 이 정도로 그냥 실행을 계속 이런 정도로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금년도는 전반적으로 우선 걱정하시는 중도탈락률 같은 게 많이 개선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실적이 좀 부진한 원인 같은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크게 보완을 했습니다. 소득 보전에서 근로 장려 쪽으로 사업목적도 전환을 했고 또 총 지원액을 낮추는 대신에 빈 일자리의 임금 요건 같은 것도

조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컨대 작년에 제조업 단순생산직 기준으로 128만 원 정도인 것을 올해는 150만 원으로 올린다는지 그래서 올해는 4만 명 알선 취업 목표 대비를 했는데 지금 3만 7746명이 10월 말까지 취업이 되어 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높다, 94% 이상을 보이고 있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상당히 저희들이 해소를 했다고 봅니다.

○**金容九 委員** 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아까 예산 관련해서 지적하셨는데 한번 제가 또 짚어보겠습니다.

그 예산 편성이 2009년도 추경 때 이것을 좀 하다가 실적이 나쁘니까 작년에 38억인가 하다가 추경 때 한 117억을 이렇게 합쳐 가지고 그것을 예비비로 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 편성하셨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제가 정확하게 작년 그 상황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치는……

○**金容九 委員**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숫자보다…… 입법부에서 볼 적에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심의권하고 입법부의 확정권을 무시한 게 아니냐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도 그런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라는 것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지책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래서 이 사업비를 보조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중도탈락률을 보니까, 2009년도 하반기 중도탈락 통계를 보면 취업자의 중도탈락률이 52.4%, 전체 총 중도탈락자 1347명 중 1개월 미만 중도탈락자가 562명으로 21.87%…… 그런데 이 중도탈락이 많은 것은 또 왜 이러냐?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도탈락률이 높아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좀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중도탈락률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24.1%로 줄었습니다.

중도탈락은 잘 아시는 대로…… 그 빈 일자리라는 게 일종의 3D 업종이거든요. 업종 자리라서

거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그렇게 됐는데 많이 줄어 가지고, 올해는 개선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金容九 委員**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실업률은 높은데, 특히 청년실업률은 7.2%나 된다고 그러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金容九 委員** 그런데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만성적으로 모자라요. 일자리가 모자란 게 아니라 인력이 모자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金容九 委員** 만성적으로 모자란데 이게 근원적인 원인이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그게 자꾸 갈 수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거든요. 지금 현재 한 60%선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에는 일자리가 있는 데도 안 가고 대기업만 자꾸 가는 취향이 있고, 심지어는 중소기업에 잘못 가면 젊은 사람들은 장가도 못 간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고정관념이 박혀 있거든요. 물론 거기는 임금의 격차도 있지만 중소기업 사업장이 열악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장이 열악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임금 보전만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그 율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느냐, 좀 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파격적으로 해 주면 이 실업자들이 ‘아, 중소기업에도 가 보니까 대기업하고 차이가 별로 없더라. 취직만 하면 괜찮더라’, 이런 인식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저는 근원적으로 좋은 사업인데 이 근원적으로 좋은 사업의 취지를 살리려면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고용노동부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 교육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육이 어릴 적부터 큰 것만 자꾸 가르치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집이 누구네 집이냐?’. 말하자면 누구네 집이 조그맣지만 아름답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큰 것만 자꾸 가르치니까 어릴 적부터 이 사고방식이 머리에 박힌 데다 지금 또 임금의 격차도 생기고 환경도 열악하니까 중소기업은 사람이 모자란데도 안 간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다른 부서의 일이지만 국무회의라는 게 국무위원이 다 모여서 하시는

거니까 그 점도 좀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중소기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통하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취업장려수당도 그렇지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역시 300인 이하 기업들 그 빈 일자리, 인력 부족률이 3.8%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심각한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교육 개혁도 저희들이 먼 산의 불 보듯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교과부와 저희들이 함께 교육 취업, 그러니까 기업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 잘하는 청년일꾼을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적극 협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金容九 委員** 아까 이범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까는 나열식의 보여 주기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는, 좀 그렇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金容九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능력 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 중 직업방송 송출 및 운영 예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일자리를 알려 주고 실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金容九 委員** 그런데 이게 날이 갈 수록 방송 시간은 조금 하던 것을, 지금 3시간 하던 것을 24시간으로 늘렸는데 예산은 보면 자꾸 삭감이 됐어요. 계속 말이지요. 보니까 2009년도에 62억이 2010년도에는 53억이고 2011년도에는 그나마도 14억 6000만 원이 적게 됐거든요. 예산이 됐는데……

그래서 방송도 정말 실업자들이 이 방송을 봐가지고 유익하다는, 우선 방송은 재미가 있어야 보지 않습니까? 암만 자기네 절박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아예 하시려면 이걸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주시든가, 그렇지 않고……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전시효과적인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위원님,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그 직업방송이 협약을 맺은 게 2009년 7월부터 시작을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회계연도가 정부 예산안하고 일치가지 않 않습니다. 그래서 50억, 58억인가…… 54억이 금

년도 예산이었는데 그중에 실제로 초과 편성된 게 한 28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1년하고 2012년 둘로 나누어서 각각 없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복잡하게 안하고 다시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 절반 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게 안 맞아서 기술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외형상 그렇게 보인 것이지 실제 예산이 줄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직업방송이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익채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내년에 공익채널로 선정이 되면 시청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도 백수잡담인가 하는 프로그램은 아주 인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름도 저희들이 ‘직업방송’ 하니까 조금 어색하고 청년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 같아서 예컨대 내일방송이라든지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고, 내실화해서 돈은 덜 쓰면서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金容九 委員** 좌우간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容九 委員**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김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선 위원** 이정선입니다.

장관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작년 추경예산 말씀을 많이 드렸지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큰불이 났을 때 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불요불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이정선 위원** 그런 상황에서 예산 추계가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저는 봤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이정선 위원** 작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 추계가 상당히 잘못됐고 사업의 부진성 또한 상당히 심각했다라는 부분을 지적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위원님, 그것은 제가 부정하지 않고요. 잘못됐는데, G20 국가를 포함해서 전 세계 선진국이 작년 봄에 다 추경 편성했거든요. 했는데, 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도 IMF라든지 OECD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권위 있는 기구도 이렇게 갑자기 글로벌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못 했습니다.

○**이정선 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사업의 부진성이라든가 적극성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미진했다라는 부분을 지적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 점은 인정합니다.

○**이정선 위원** 장애인고용공단에 있어서 다른, 지금 웬만한 데는 콜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콜센터 하나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과연 장애인들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단이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고로 종합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질의드렸어야 될 사항인데요. 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콜센터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본인의 어떤 상담이라든가 어떤 질의가 있을 때 직접적으로 그 담당자를 만나기 어렵다는 호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데에 콜센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그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만드는데. 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 환산을 해 보니까 한 5억 정도가 드는데 실질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예산은 한 3억에서 3억 5000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금년 상반기 동안에 콜민원이 총 1600건 정도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70건 정도가 되는 셈인데 이것은 직원 한 사람이 6개월 동안에 5.7건 정도가 되니까 아직은, 이게 닦이 먼저냐 달같이 먼저냐의 문제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수요가 콜센터를 따로 설립할 정도로 충분치 못하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이 좀 낮지 않느냐 해서 우선 내년도에 한 3명에서 5명 사이의 전문상담원을 채용해 가지고 대표전화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하면 어떠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수요가 없는 곳에 고속도로를 놓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반론과……

○**이정선 위원** 장관님, 그것은 저는 장관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정선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고속도로를 놓으면 이용량이 늘어날 거다 하는 주장과 수요가 없는 곳에 고속도로를 놓으면 과잉투자 아니냐 이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어느 게 나은지는 면밀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선 위원** 저는 보는 시각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의 특성상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그 인지가 폭넓다고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직접 가기도 어렵고…… 물론 수요적인 부분의 얘기를 하시는데 고용공단이 수요적인 부분의 일을 역할이라든가, 장애인들이 그런 인식을 충분히 하게 역할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처음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요가 적다 하더라도, 단 1명이라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일반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훨씬 취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보장을 시켜 줘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 저는 보는 시각을 달리하고요. 이 부분은 예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주장, 그런 주장이 있고 그와 반대되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정선 위원** 이 부분은 장관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의 작은, 배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꼭 해야 될 부분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청년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6, 7월부터 예산 책정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작년도 취업성공패키지라든가 여러 가지, 청년 뉴스타트라든가 고령자 뉴스타트 이런 프로그램 지금 통폐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이정선 위원** 작년에 보니까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경우는 취업성공수당이라고 해 갖고 1개월

취업을 하면 수당으로 해서 60만 원, 4개월 지나면 또 4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당만 갖고 취업의 연속성을 갖지 못하는 낭비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폐합하신 것은 저는 굉장히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참 좋다,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앞으로 좋은 방향성을 잘 잡고 가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을 해서 단계별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 고용노동부가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이정선 위원** 그런데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소득층’ 하지만 위기 청소년, 출소예정자, 청년층, 6개월 이상 장기구직자, 니트족…… 하여튼 대부분 이런, 계층이 다양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매뉴얼에 관한 예산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24억이 지금 올라왔는데 사실 이 사회적기업의 취지가 뭐니까? 취업, 근로의 취약 계층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이정선 위원** 청년이 지금 사회적기업 창업을 한다라는 부분의 얘기를 한다면 청년들이 과연 그 사회적기업의 취지에 맞는 CEO가 그것도 단기간에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회적기업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으로 간다면 할 수 있지만…… 단기간에 이런 예산을 투자 하면서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에 혹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보셨는지 또 청년들과의 그런 연계가 잘 돼서 하실 수 있는지,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틈새시장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확실히 잘할 수 있는 어떤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 지금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플라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강사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가 주체냐? 청년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청년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고용노동부가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강사진이 라든가 현장 감각에 맞는, 청년들의 어떤 욕구와 그런 프로젝트가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청년녹색일자리에 대한 홍보사업비 7억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송, 공중과 다큐 프로그램에 관해서 전체 7억 중에서 4억 6000이 들어갔습니다. 5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 다큐멘터리, 체험 삶의 현장, 다큐 3일,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 기존 방송프로그램에 이것을 갖다 꿰맞추려고 합니까? 이것 한두 명이 체험 삶의 현장 가서 했다고 청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그러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의 예를 들면 옛날에 항공사 직원이 되기 위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방송사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송사에서 그 프로그램을 청년 고용에 맞게 방송사의 특성과 또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이것을 해서 넘겨 줘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지 있는 기존 프로그램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과연 홍보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에 주안점을 뒀서 과연 청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주안점을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홍보의 효과가 높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취업 지원에 관한 작년 예산에 있어서 글로벌 취업 성과를 보면 작년에 43%, 작년에 나갔다가 1년 만에 들어온 취업생들이 43%가 됩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하겠다고 예산이 됐는데, 또 연수기관도 부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다시 한번 되고 이것이 보완이 되어야 이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이 사업들의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효율성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거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취업 지원은 작년 재작년에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에 성과가 크게 미흡했습니다만 올해는 성과가 상당히 좋아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0개월 만에 지난 3년간 성과보다 더 많은.....

○**이정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연수기관의 문제입니다. 연수기관이 부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연수기관 가운데 상당히 부실한 기관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서 다 배제하도록 하고 약정취업률 같은 것도 저희들이 크게 높이도록 했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내년부터는 40%에서 66%로 올리도록 그렇게 목표도 설정하고 취업률이 0인 기관들은 내년에 배제하도록 하는 등등의 조치를 저희들이 하겠고요.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게 지금 주된 타겟 대상이 청년들로 되어 있습니다만 굳이 청년으로만 한정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아닌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것이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하려고 하고요.

잠영프라자 강사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신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홍보 방법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들이 참조를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챙겨 보고 있는데 역시 새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는 게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어쨌든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돈은 어차피 제약된 거기 때문에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선 위원** KBS나 이런 공영방송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만 협의하면 이 정도 예산 갖고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희도 좋은 아이디어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천 위원** 한나라당 강성천 위원입니다.

장관님, 산하기관 사업비 퇴직충당금 적립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퇴직금은 국가재정법상 어느 회계에서 지급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재정법상에는 어느 회계에 편성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취지를 보면 인건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말하자면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성천 위원** 국가재정법 4조를 보게 되면 ‘조세수입으로 국가의 일반적 세출을 충당’ 하고 괄호 해 놓고 ‘매년 반복 및 지속되는 사업’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관님께서 얘기하시는 퇴직충당금, 즉 퇴직적립금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라고 하는 그런 요지가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퇴직급여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인건비성 경비고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예산이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강성천 위원** 사업기금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공단들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린다면 각 공단의 출연 근거 법률과 기금 용도 조항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2008년부터 2009까지 산하기관 사업예산이 1조 6585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희가 집계한 것으로는 2조 1346억 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계수가 약간씩 기준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같은 기간 사업비 160억 2300만 원이 불용되어서 퇴직충당금으로 사용됐거든요.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시다.

○**강성천 위원** 사업비를 불용해서 퇴직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하

고 기재부 산하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정부출연기관의 경우에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족할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맞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는 관련법하고 예산이라든지 또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서 불용액이나 수입초과액 또 결산상 잉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아까 장관님이 얘기하시는 것하고 괴리가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원칙과 예외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강성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편법 아닙니까? 기금으로, 사업비로 퇴직금 충당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지요. 일반회계에서 써야 될 부분을, 지금 이게 기금이거든요, 사업예산에서 쓰고 있는 그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원칙적으로 인건비성 경비로 적립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사업비로 충당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그 근본 취지에는 맞지 않는 어색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러니까 해야 될 사업은 하지 않고 그 사업비로 퇴직금을 충당했다고 하는 그 얘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퇴직급여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업을 안 했다가보다는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생기고 사업수행경비 중의 일부는 절감을 한다든지 집행잔액과 같은 예기치 못한 불용액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 불용액으로 생긴 결산상 잉여금을 퇴직급여 충당에 우선 적립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러면 금년 불용액은 예를 들어 그렇게 썼다고 하지만 회계법에 보게 되면 2년차에는 그 불용액을 쓸 수가 없는데 쓴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2년차라는 게 이월이 아닌 재이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이월 케이스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고학력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추경이 하

반기에 103억 원이 편성이 됐다가, 하반기에 추경이 편성됐기 때문에 2008년도 집행은 어려웠고……

○**강성천 위원** 장관님, 그것은 장관님 사정이시고 저는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노동부 사정을 얘기하시는 거고 저는 거기에 대한 재불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재불용을 했다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아닙니다. 재이월은 가능합니다.

○**강성천 위원** 재이월이 가능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가능합니다. 재이월이 아주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월에 이월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2008년도 하반기에 추경이 됐기 때문에 2009년 이월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2009년도 연수기관에 대해서 성과금은 나중에 연수 끝난 뒤에 취업 후에 12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된 것을 보고 나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10년으로 다시 이월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2008년도의 해외연수사업이 2009년도로 넘어오고 그 연수받은 사람이 어디 취업을 해서 12개월 동안 취업하고 있었느냐를 보고 성과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2010년으로 넘어온 겁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강성천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예산 부분인데요.

내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시행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강성천 위원** 그러면 노동 현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가는 이런 시점에 예산을 20%나 절감을 시킨 이유가 뭐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와서, 이 사업뿐만 아니고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기재부가 평가를 하는데 그중에 일률적으로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가 난 사업들은 삭감을 하게 정부 방침으로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강성천 위원**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예산을 삭감해서 될 사안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정부의 전반적인 여러 사업들에 대한 획일적인 잣대로 불가피하게 된 것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7월부터 복수노조 도입 등 여러 가지 노사 관련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위해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특수성이 인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것 증액해야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런 바람을 제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예산 심사에서 본 위원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을 증액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강성천 위원 그런데 2011년 기금안을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 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2006년부터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200억 원씩 매년 들어오고 있는데 요. 하여튼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정당국 쪽의…… 어쨌든 반영이 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올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영시켜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제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도 하지만 또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이 예산 안에 찬성을 했던 입장으로서 ‘올려 주셔야 됩니 다’ 자꾸 이렇게만 답변을 하면……

○강성천 위원 반영은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 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모두에 이찬열 위원님 께서 일반회계와 기금에 관해서 일반론을 말씀해 주신 그 취지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 일반회계에 서 해야 될 사업들의 부담을 기금들이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격차를 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회계 신 규사업 중에 사회공헌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0 억 4000만 원을 책정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강성천 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에 전문직 퇴직 자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도 참여 할 수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참여할 수 있습니 다.

○강성천 위원 사업대상자가 불분명한 것은 본 래 사업목적과 달리 사업 달성을 위한 짜맞추기 식 사업 진행이라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요, 저희들이 취업취약계층들에게 어떻게든 재정을 들여서라도 일자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취지에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청년실업자 등이 포함되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강성천 위원 내년 예산 4억을 삭감하고 2012 년부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 규모를 사업 물량을 선정할 때 한 1000명 정도로 봤거든요. 그런데 1000명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자원봉사활동 수요라든지 공급 가능한 인력 등을 감안할 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강성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 민주당 이미경 위원입니다.

야당위원들이 지금 자리에 안 보이지만 예결위 장에 가 계십니다. 민주당과 야 5당이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 면서 지금 예결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일단 장관님 오셨으 니까 현대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긴급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지금 현재 9일째인가요, 파업을 하 고 있는데 2004년도에 노동부가 현대차에 대해서 는 불법파견이라고 판단을 내린 적이 있지 않습 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2004년, 2005년 그때……

○이미경 위원 그리고 법원도 잇따라 불법파견 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노동부가 행정지도를 미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 니다.

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 파견이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고 따라서 행정지도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차 사태는 노동부의 업무 방기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법원에 제소를 해서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노동부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법원에서 계류 중이니까 그때 판단을 보자 이려고 있고 지금 대법원에서 고법으로 내려가 있으니 또 그게 끝나는 것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부하고 사 측이 준법의지가 없으니까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주목을 받을 수 없다 이런 판단하에서 파업을 일으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법원에 미룰 것이 아니라 노동부의 판단에 따라서 분명한 행정지도를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장관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답변을……

○이미경 위원 답변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할 얘기 많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노동부의 역할이 이러한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국회의원회관에 가면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1980일, 6년 동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투쟁을 하면서 그동안 찍은 사진을 가지고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꼭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다시 돌이켜 보면서 6년이라는 이 세월에서, 정말 어린애가 나갔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그런 정도의 긴 시간 동안 투쟁을 해서 겨우 지금 아주 희미한 승리를 하나 했습니다. 그동안 200명 중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10명 정도가 복직된다 하는 그런 사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 보면서, 사진전의 제목이 ‘너희는 고립되었다.’…… 노동자가 철문 사이로 고립되었지만 결국은 이 비정규직에 맛이 들어 있는, 그래서 노동시장을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점차 고립되어 가는 것 아닌가, 이 세상의 대의와는 고립되어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시가 한 편 있어요. 시간이 제가 없지만 짧게 장관님한테 그리고 노동부 우리 공무원들께 한번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비정규직 문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송경동 시인이 쓴 건데요. “가난한 인력시장에서 불법으로 언제든 살 수 있는 64만 원짜리 싼 기계들이 있었다. 2년만 쓰다 버리고 새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순박한 기계들이 있었다. 그 기계들은 엉덩이를 가지고 있었고 빨개지는 불을 가지고 있었다. ‘예, 예’ 말 잘 듣는 입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쉬지 않는 손과 발을 가지고 있었다. 이 기계들은 하루 8시간씩 서 있기만 해도 돈을 벌어 주는 희한한 기계들이었다. 무엇보다 임대 사용료가 터무니없이 싸고 수리비도 따로지불하지 않고 사용 후 재처리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희한한 임대업에 맛 들어서 무려 200여 대의 기계를 불법으로 공장에 빼곡히 들여놓았다. 따뜻한 장사, 너희의 입이 기쁨에 찢어질 때 기계들의 손발은 부르짖고, 가랑이는 찢어졌다. 그게 우리였다. 도저히 참지 못해 우리가 싸디 싼 비정규 기계가 아닌 어디 하나 하자도 없는 정규사람임을 외쳤을 때 너희는 본보기로 수십 대의 기계를 대책 없이 내다 버렸다.”……

저는 이것이 기륭전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자동차 그리고 전국 곳곳의 비정규 불법 파견 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노동부의 역할은 당연히 이러한 비정규직으로, 불법 파견으로 내몰리고 있는 기계 아닌 이 사람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장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존경하는 노동부 공무원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인지, 그걸 위해서 어떤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정말 여쭙고 싶습니다.

불법이라고 내려졌으면 행정조치, 꼭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조치,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파업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노동부가 불법 파견 알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사용자들 편만 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 아니라 법이 지켜지는 이러한 사회에 살고 싶다, 그것이 공정한 사회고 정의다, 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까?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정의에 목말라 있기 때문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거·농성·분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절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 미룰 것이 아니라 노동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고 이 불쌍하고 힘없는 노동자들한테 배상금 물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다시 한번 더 옥죄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 절망 속에 노동자들 밀어 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산 질문에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위원님, 그러면 아까……

○**이미경 위원** 제 질문 다 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이미경 위원** 지금 실업문제로 해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기금 굉장히 소중한, 우리가 지켜야 될 기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 기금을 제대로 보장을 하도록 하자 해서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그 기금에서 돈을 받아 가는 많은 단체들, 집단들이 항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건전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모성보호급여 할 때 제가 고용보험기금에서 하자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문제를 하면서 일단은 일반회계로 하자라는 주장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여전히…… 지난 정부에서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정부가 100억밖에 부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지출이 5000억에 이르는데 100억만 부담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어 가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 이제는 점차 일반 예산으로 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지 됩니다.

저출산 대책하고 온갖 생색을 정부가 다 내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장관님이 애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관심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상당히 타당한 주장이었지요. 모성보호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것, 타당한 주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이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노동부 직원들이 나서서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저는 일리 있는 반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 주장을 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노동부가 말도 안 되는 돈들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저는 지금은 거꾸로 애가…… 거꾸로가 아닙니다. 애가 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고용보험 나중에 올릴 계획만 짜고 있으면 다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기채취업수당 전면 삭감되어야 됩니다. 이것 1년의 그 규모가 5000억 원에 이르는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것 뭐 제도를 수정해서 6개월 후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일반 예산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그리고 사실은 이것의 타당성도 굳이 이렇게 이 돈을 지급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전면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제가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는 고용안정·직업훈련 계정인데요. 최근 5년간 고용센터 자체 청사 짓고 매입하는 데 1조 2000억 썼고 종합직업체험관 짓는 데 1347억 썼습니다. 이런 예산들 일반회계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에 최근 5년간 5304억 원 썼는데 이것 역시 일반회계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기금관리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청년실업 예산에 대한 것들 다 허술하게 집행되고 계획되고 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 지적되어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지켜야 되는 고용보험기금 곧 고갈 난다고 빨간 신호등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돈을 빼 가는 것…… 장관님, 청와대에서 일하셨고 또 전체 이 예산 계정을 잘 봐 오신 분인데 노동부 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 고용보험기금이 이렇게 고갈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이거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답변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우선 일반론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이찬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와 고용노동부 소관 각종 기금의 계리를 어떻게 적정하게 함으로써 자기 책임 원칙이 확립되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

서는 귀담아들을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모든 일반회계와 전·출입 관계를 정리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런 가운데 모성보호와 관련해서 2001년도 국회 부대결의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행이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좀 다른 측면을 말씀을 올리면 육아휴직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이…… 저는 이름이 꼭 ‘모성보호’라는 것이 적합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그러니까 일과 가정의 양립 이런 차원에서 더 이해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꼭 모성보호로만 보기보다는 우리 고용노동부 쪽에서도 사실은 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서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경 위원** 노동부의 일반회계를 잡아서 쓰시라는 그 말입니다, 노동부가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제 말씀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해서는, 질문을 짧게 해 주셔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실업급여 쪽에서의 구직급여하고 조기재취업수당……

○**이미경 위원** 그 얘기는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거는……

○**위원장 김성순** 답변을 좀 짧게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삭감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체 청사 신축 이런 거는 일반회계로 될 측면이 상당히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역시 또 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함께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모두에 말씀해 주신 현대자동차 건 관련해서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안 하려고 하고 내버려두고 있는 게 아니고 잘 아시는 대로 29개 원청업체에 대해서,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25개 사업장은 실태조사를 끝냈고요. 내일 그

결과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당초 국민들께 약속했던 대로.

그러나 현대자동차가 있는 울산·전주·아산 공장하고 타타대우상용차의 경우에는 노조에서 실태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사를 완료할 못 했습니다. 참고로 25개 사업장을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4개 사업장에서는 불법 파견 사례를 확인을 했고 그중 한 군데는 저희들이 지적을 하기도 전에 327명 전부를……

○**이미경 위원** 저기요, 그냥 묻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답변하는 데 시간 보내시지 마시고요.

장관님, 그 얘기 안 들어도 됩니다. 뻔한 얘기를 지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장관님께 요청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판단하셔서 이게 불법이라고 노동부가 생각하시면 법에 따라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걸 가지고, 무슨 실태조사라고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경 위원** 지금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직장폐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직장폐쇄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런데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실관계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요건에 이게 부합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의 정신은 명확한데 이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실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순** 자, 답변도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경 위원** 저기요, 우선 타타대우상용차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실태조사 안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것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미경 위원 거기의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겠다는데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태를 알 수가 없지요.

○이미경 위원 타타대우상용차의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타타대우상용차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 매년 10%의 사내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울산공장에서 받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은 상당히, 2004년부터 지금까지 시간 끌었고 그리고 이것을 교묘하게 마치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알리바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제가 알기에는 공동 실태조사를 하자, 그렇게 해서 공동 실태조사를 하면 결국은 최종 결론을 내릴 때 노조와 정부가 공동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상대방에서 수용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조사에는 협조를 하고 참여는 하되 조사의 주체는 정부가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은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자, 됐습니다, 이제.

○이미경 위원 일단 직장폐쇄를 할 용의도 있다는 것이지요? 불법이라면 그렇게 지도할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이미 저희들이 25개 업체 중에 네 군데는 그렇게 지도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호영 위원 오전 질의는 제가 마지막이지요?

○위원장 김성순 예.

○주호영 위원 장관님,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국회에 가지고 올 경우에 소위 재원, 자원 분배 회의입니까? 재원 분배 회의를 해서 각 부처별로 실링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짜 오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국가재정전략회의.

○주호영 위원 그런데 다들, 각 부처에 보면 우리 부처는 예산을 이만큼 요청했는데 기재부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됐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다 실제 자기 부처에서 하는 사업에 비해서는 할당되는 예산액이 좀 만족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노동부의 경우는 꼭 하고 싶었는데 이게 예산 당국과의 협의에서 반영이 잘 안 됐다, 이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이것은 꼭 좀 국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주호영 위원 그러면 요청했는데 반영 안 된 것 중에서 중요한 것……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께……

○주호영 위원 그 대표적인 것 한두 개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대표적인 것은 제가 예산을 요구…… 몇 가지 알고는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라는 것이 결국은 또 우선순위와 관련되기 때문에……

○주호영 위원 그렇게 급한 게 없는 모양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아니, 왜냐하면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증액을 해 주시거나 신설해 주시면 저희들이 동의할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나서서 상임위에서 선도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좀 어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호영 위원 꼭 국회에서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왜 반영되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좀 적어서……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전체 보니까 민간 이전·위탁 사업 비율이 고용노동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 총액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전체 비율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주호영 위원** 그것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아마 그런 개수를 혹시……

(뒤의 실무자에게 물어봄)

별도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그러합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민간 이전·위탁 사업의 경우는 사실 그 효과라든지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것이 예산 당국이 생각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도 이전·위탁받는 업체의 어떤 영업활동이라 할까 그걸로 그냥 근근이 이어져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특별히 점검이라든지 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전체 총액도 지금 제대로 유지될 안 하고 있네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제가 특별히 그것을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주호영 위원** 그래서 소위원회 심사할 때까지……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민간 이전·위탁 사업 리스트 좀 전부 내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다음에 제가 구체적인 항목에 관해서 한 4개 쯤 준비를 해 왔는데 앞서 위원들이 다 중복해서 지적한 것들은 제가 제목하고 저도 삭감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재분배를 했으면 좋겠다든지 취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만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사관학교 운영지원, 이게 교육 대상이라든지 효과에 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특히 학업 중단, 가출한 애들은 학교조차도 안 다니는데 애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것 아니냐, 우선 애들을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데 보내서 제대로 생활하게 하는 게 급선무인데 아주 착한 아이들로 전제해서 직업교육 시키겠다, 이걸 좀 너무 발상이 순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구요.

그다음에 글로벌취업지원사업,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취업인원이

대략 한 1400명 정도…… 6000명 이상 교육을 해서, 그런데다가 2008년·9년은 모집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도 탈락률이 사업 시행 초기에는 5%였다가 지금은 27%까지 증가하고 있고,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늘려야 되는 것인지? 특히 올해보다 예산이 내년에 많이 증액 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잡영 플라자(Job-Young Plaza), 이것도 중복되는 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상담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에…… 몇 분입니까? 열일곱 분, 이렇게 했는데 이것 자체가 또 고정된 자리로 남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취업센터와의 중복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이 주로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각 대학 자체가 취업지원센터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 취업 지원하는 관계를 전부 한번 새로 점검을 해서, 자료도 중복되게 취합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 근로자 권리구제 강화, 이것도 올해 예산이 22억입니까? 22억에서 내년에 36억으로 대폭 증가가 됐어요.

됐는데 이 중에 연소 근로자 보호를 위한 예산이 상당히 포션이 작습니다. 그래서 취약하다고 그러지만 어른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방어 능력이라든지 자기권리 주장할 것이 좀 있는데 어린애들은 성인세계라든지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사실은 못 밝히고 넘어가서 연소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연소 근로자 보호에도 이게 지금 4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광고비만 3억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광고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도점검예산은 2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광고 쪽보다는 지도·점검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방학 때만 그냥 형식적으로 돌아보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연소자 보호를 하려면 이쪽으로 조금 예산 비중을 옮겨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증감이 필요

한 예산은 우리 전문위원회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 예결소위 할 때 다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원창희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국정감사,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본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중에서 예산 지적 사례가 많을 겁니다. 필요한데 없든지 아니면 잘못 집행되거나 이랬다든지, 이걸 체크리스트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좀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국감 할 때 위원들은 이 예산 줄여야 된다, 늘려야 된다고 해 놓고 그것 없이 그냥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면 체계적이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과 그것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올해 국감에서 위원들께서 예산 삭감을 주장한 거라든지 예산 증액을 주장한 부분,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나 자체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을 전부 리스트 업을 좀 해서 각 항목별로 대비하면서 삭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자료는 전부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준비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러면……

○주호영 위원 하실 부분 있으면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아까 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관학교는 그래서 저희들이 여가부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들 중에서 100명만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한번…… 순진한 발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가부 프로그램 수료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좀 우수 자원을 우선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글로벌 관계는 올해는 실적이 상당히 괜찮다, 지난해·제작년에는 아주 어려웠지만 올해는 상당히 젊은이들이 이쪽에 시각도 많이, 문도 많이 두드리고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좀 독려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영에 대해서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별도의 이런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은 있었고 각 대학에도 이런 취업지원제도가 취약한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소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호사업을 활성화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찬성을 하고요. 광고나 지도·점검 외에, 지도·점검도 조금 한계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 좋은 게 없는지 저희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자료를 기초로 한 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실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주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 민주당 인천 부평 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최근의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로 굉장히 상황이 지금 안 좋습니다. 저는 최근에만 하더라도 KEC에서 분신한 김준일 씨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문제로 분신한 황인하 씨, 내가 두 분을 병원에 가서 직접 면회를 했습니다.

장관님은 그렇게 분신한 분들 화상 이런 걸 직접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으로 참혹한 모습을 아마 상상을 못하실 겁니다.

제가 부산 베스티안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황인하 씨를 사고 직후에 가서 봤는데 그분이 얼굴이 한 3도 정도의 화상이라서 얼굴에 완전히 붕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국회의원이 왔다니까 벌떡 일어서면서 하는 이야기가 ‘의원님, 이번에 비정규직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실 이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불법 파견문제는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

리 사회, 우리 국가 전체가 어떤 해결책을 꼭 찾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문제는 2004년도에 노동부에서 불법이라고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것에 대해서 사법적 처리를 하지 않고 미루다가 지금 저는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동부가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말로만 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비정규직 문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수고용의 문제라든지 어떤 차별대우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법안도 우리가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정부 여당에서는 사실 이 환노위에 제출해 있습니다만 상정도 못 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공정사회를 외치고 친서민정책을 외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공정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장관님, 자동차 회사를 가 보십시오. 라인이 있는데 라인에서 이름표만 다르든지 옷이, 복장이 다르든지 이런 이유 하나로 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고, 그렇게 해서 임금의 차이가 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순하게 금전적으로 우리가 차별을 받는다 이걸 넘어서서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장관님의 답변을 꼭 듣고 싶은 것이, 오늘 오전에도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불법 파견문제에 대해서는 29개 업체를 조사했고 4개는 응하지 않아서 못했고’, 저는요…… 지금 이명박정부가 권력을 남용해서 공권력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사례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문제는 저는 그런 것의 한 10분의 1의 의지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진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장관님께서 ‘비정규직을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지금 특히 불법 파견문제요. 29개 업체에 대해서 실태조사 했다, 그 외에 도대체 하신 일이 뭐니까? 그걸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29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실태조

사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배경은 만족스럽지는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행법상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에 비추어서 사내하도급과 파견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25개 업체는 조사를 끝내고……

○홍영표 위원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신 게 정확히 언제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희들이 9월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해 가지고……

○홍영표 위원 올 9월이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제가 8월 30일 부임을 했고, 9월 초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가서 10월 22일에 저희들이 조사를 마치고 지난 11월 중순에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종합결과를 발표할 것이고요.

○홍영표 위원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제가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까?

○홍영표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시간을 뺏아서 죄송합니다만, 국감기간 중에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전수조사는 못하겠지만 11월 29일부터 파견 활용 실태조사를 제조업체를 상대로 해서 약 600개소를, 실태조사를 일단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뭘 했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하고, 그다음 내년 초까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하는 걸 일단 이미 발표를 한 바 있고요.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어쨌든 분신 등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고 정부가 지금 진정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실태조사가 빨리 진행되어서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현행법에 의해서라도 원만하게 사태가 수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특히 불법 파견문제가 이렇게 속으로 끓어가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갈등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에…… 그 판결이 7월 22일에 있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고도 한 한 달 반이 지나서야 그때서야 뭔가 하는 척하려고 나선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 자신도, 이 비정규직 문제가 구조화돼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방안을 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될 핵심적 과제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진짜 일해야 될 것의 90% 이상이 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저는 합니다.

그런데 고작 해서 9월부터 그런 조치와 어떤 실천을 했다는 것이, 저는 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제대로 안 갖고 있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위원님……

○**홍영표 위원** 우선 그렇게 보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위원님, 실태 점검은 9월 6일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실태 점검하기 전에……

○**홍영표 위원** 지금 이 불법 파견 문제가 4년 동안 지속됐는데 그 이후로, 검찰에 넘긴 이후로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할 일 다 했다 그런 태도 아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제가 알기에……

○**홍영표 위원** 그래서 재판이나 기다려 보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임오프 가지고 근로감독관들 동원해서 온 나라의 기업들을 다 뒤지고 다니고 난리를 친 노동부에서 불법 파견 이렇게 심각한 문제 가지고……

근로감독관 제대로 한번 일 시켜 봤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래서……

○**홍영표 위원** 노동부장관님이요, 저 같으면 지금 현대자동차 현장에 가서 상황도 보고 이것 풀려는 노력을 하겠습니까. 보고만 받고,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사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타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동의합니다.

○**홍영표 위원** 그런 데 있어서 노사 간의 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제3자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국가가 그런 역할을 못 합니까?

지금 현대자동차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산

업적으로도 국가 경제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 장관이 좀 나서서 중재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게 이명박 정부입니다. 그저 경찰력 투입하고 용역회사 깡패들 동원해서 그런 갈등을 악화시키고 그것이 지금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이 맺혀 가지고 분신하게 되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이렇게 악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장관께서 직접 현대자동차에 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우선 저희들 7월 22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나고 조사는 9월 6일부터 들어갔습니다마는 8월 중순부터 저희들이 조사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사간담회라든지 노사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해 왔었다, 그래서 9월 6일부터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장관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보면,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막후에서라도 양측의 대화를 주선하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정부로서 지금 이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저는 장관님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이 문제를 좀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야 차치하고라도요. 지금 그 상황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의 불상사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조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그런 노력을 좀 하십시오.

하시고, 현대자동차가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저렇게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몽구 회장,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잘못……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 더 악화되면 이 자리에 불러낼 겁니다. 정몽구 회장이 여기 와서 이 불법 파견 문제에 대

해서 직접 내가 증언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장관님께서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 같은 분들이 좀 나서서 노사 간에 뭔가 타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 와서 경찰력 동원하고 그래서 공권력으로 짓밟는 것 외에 노사관계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푸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위원님, 중심에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가슴에 새기고, 저희들도 지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지금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어떻게 보면 사용자 측만 해도 양측으로 있고 또 근로자 측을 보더라도 원청업체에 직접 소속된 근로자와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청업체 근로자 가운데서도 2007년 이전에 2년이 경과해서 고용 의제가 되는 근로자와 그 이후에 고용 의무를 갖게 되는, 수반되는 그런 근로자……

○**위원장 김성순** 답변 마무리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2년이 안 된 근로자 등등 아주 교섭 당사자의 지위 자체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저희들도 가시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 장관님, 사회적기업진흥원 이제 출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연말까지 출범 가능할까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희들이 연말까지 출범할 수 있도록, 그게 법 시행이 아마 12월 9일 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연말까지는 출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인원 선발하고 평가 체계 수립하고 이런 데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직원들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선발을 해서 필기시험까지 마치고 면접에 2.5배수까지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원장 등은 조만간 공모절차에 들어가게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내년도 예산이 173억 정도……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을……

○**조해진 위원** 그중의 한 124억이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주된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에 편성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청년으로 국한할 필요가 있을까 싶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당초에 기획 설계할 때의 대상은 청년이지만 굳이 그렇게 국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 자체가 애초에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 벗어나 가지고 청년을 반 이하로 줄인다는지 이렇게 하시기는 또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출발이 괜찮아야 되는데 청년 기업인들 중에 특히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굉장히 미개척 분야고 경험도 축적 안 되어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 세대에서는 더더욱 경험 있고 또 경영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 발굴해서 하기가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적절한 조합으로 인적 구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해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청년에 국한할 필요가 없겠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조해진 위원** 경험 있는 그런 분들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1차 목표가 36개 팀을 선정해 가지고 각 팀당 3000만 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목표는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양적 목표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고 저는 내실을 좀 추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동의합니다.

○**조해진 위원** 또 일률적으로 3000만 원으로 이

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 상황 봐 가지고 좀더 많이 지급할 데는 많이 지급하고 또 더 차등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사업 계획을 받아 보고 등급을 매겨서 그에 따라서 더 유망한 데 좀더 밀어주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해진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서, 이미 그런 쪽에 경험 있는 다른 부서 들하고도 서로 교류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쪽의 기존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는 그런 노력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총괄이 고용노동부지만 사실은 이게 범정부하고, 지자체 포함해서 범국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고용노동부가 총괄하면서 좀 빈약할 수 있는 시각, 중소기업청 쪽의 기업가적 마인드랄까요, 그런 쪽하고 보건복지부 쪽의 취약계층을 보는 따뜻한 눈, 이런 것이 잘 결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내년 예산 중에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임여성 대략 삼백몇만 명되는데 그중에 비정규직을 한 100만 명 정도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 400명인가, 4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것밖에 실질적으로……

○**조해진 위원** 비정규직이고 여성이고 또 출산까지 겹치게 되면 굉장히 근로 조건, 고용 조건에 나쁜 조건이 겹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 정도면 거의 시범사업 수준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이게 2007년부터 2억 인가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올해 8억인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절대 금액을 보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나마 이게 활용이 많이 안 되어 가지고 실적 자체가 미미해서 저희들이 크게 잡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그래서

또 불용이 많이 나고……

○**조해진 위원** 수요가 적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잠재 수요는 저희는 많다고 보고요. 그것을 촉발하고 그것을 좀 관용하는 그런 문화랄까요, 그런 기업 문화, 이런 것 등등이 다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출산 후 계속 고용이 지금 아주 확산되고 있지 못한 것을 좀 확산시켜야 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올해 실적을 봤을 때 너무 욕심을 냈다가 불용이 많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19억 정도로 잡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제도적 노력을 통해서 이게 좀더 확대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조해진 위원** 잠재 수요는 장관님도 그렇게 보시고 저도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다면 그 수요에 접근해 가지고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현장의 노력을 좀더 많이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조금씩 조금씩 늘려간다는 것은 일단 이 사업 수요가 있다는 것이 이미 우리가 인식했고……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또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도 하고 다각적으로 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저는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집행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 사업 정책 집행 수단과 절차, 인원, 방법, 이런 것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네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일단 제도 개선은 저희들이 일부는 했습니다, 내년에 좀 늘어나도록. 그래서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즉시’라고 요건이 매우 한정되어 있던 것을 ‘끝난 즉시 또는 출산 1년 이내’ 이런 식으로 요건 자체를 좀 완화를 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해진 위원** 근로자들은 원하는데 사업주들이 이것을 가져다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금년 10월까지 집행 실적이 8억이니까 그런 걸로 보면 내년에 주어진 예산이 그다지 적다고 꼭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해진 위원** 여력이 된다면 지원 규모 자체를 좀더 늘려서 고용 측에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해진 위원** 한 달에 30만 원씩 60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던데……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맞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다음에 산재 예방 사업에 일반회계 출연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올해 요청되었던 게 140억인데 이것을 그대로 다 반영해도 0.3% 겨우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몇 년 계속되어도 그렇지요.

○**조해진 위원** 법상으로는 3% 이내로 되어 있고 지금 개정법안이, 박대해 의원님 제출해 놓은 데는 3% 이상이라고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현실은 지금 0.3%에도 못 미치는데 그것도 또 삭감되어 가지고 92억인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반회계 출연을 통한 투자를 계속 늘려 가겠다라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 자체도 이게 연차 계획으로 한 10년 뒤에는 3%까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 가지고 해마다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나중에는, 10년 뒤에는 1400억인가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겨우 92억이면 그 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좀 대폭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옳으신 말씀이라는 답변과 함께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안 그러면 결국은 기업 측에서 보면 기금은 기금대로 내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또 산재 예방 자체, 예방 비용이 별도로 들 것 아닙니까, 기업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국가가 해 주는 게 거의 없는 셈이 되는데 정부는 ‘우리가, 국가가 정책으로 내세우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그렇게 하고 예산은 거의 쥐꼬리만큼 주고 이것은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꼭 고용노동부뿐만 아니고 전 부처 예산에서 일반회계와 각종 기금 사이에 칸막이라 할까요, 한편으로는 칸막이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절하게 역할 배분이 되어 있지 못하고 혼재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고치기가 참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고쳐나가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해진 위원** 폴리텍대학에서 재작년, 2007년 10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력 교사들이 지금도 인건비가 사업비 예산으로 책정되어서 계속 나간다고 그러네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제가 나가는 목은 모르겠습니다만 정규직 교사의 한 70% 정도 수준까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것은 사업비가 폐지되거나 사업 항목에 변동이 생기면 임금 지급 자체도 불안정해지는, 구조적으로 저는 안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인건비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게 맞고 제가 아까 답변을 70%로 말씀 올렸는데 60%에서 차츰 올려 가지고 80%까지, 채우는 상당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 앞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저런 우리 예산에서 기금과의 구분이 또 역할분담이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시정이 중장기적으로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조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조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수 위원님 그다음에 해 주십시오.

○**홍희덕 위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위원입니다.

장관님, 2005년도에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하고 부노 사건에서도 원청도 하청의 근로조건 결정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한해서 원청이 하청의 사용자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된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이 판정이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개별적 계약관계에서 사용자가 아니어도 집단적인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일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홍희덕 위원** 그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런 판결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대법원의 판단은 이해적인 것이 아니고요, 노동법 학계에서는 이미 정리된 입장입니다. 보수적인 의견을 가진 학자 분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의 중앙노동위원회는 바로 얼마 전 현대차 원청업체와 비정규직 노조는 서로 직접 고용관계를 단정할 수 없어 노조법상 노동쟁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너무 용감해서 그러는 겁니까? 고용노동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어 비정규 노동자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법을 위반했습니까, 장관님? 5~6년간 지루한 소송 끝에 대법원의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사 측에게 교섭을 요구했고, 그렇지만 사 측의 완벽한 무시와 배척으로 궁지에 몰린 노동자들이 불법폭력집단입니까, 아니면 대법원에서 도급이 아닌 파견이라는 판결을 확인하고도 팔짱 낀 채로 파견법상 차별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입니까?

현대자동차는 중노위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등에 업고 하청업체를 폐업시키고 이미 수년간 근무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을 공장에서 내쫓았고 결국 지금 노동자들이 분신하는 사태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본 위원은 고용노동부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2004년 불법파견 판단을 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검찰과 법원에서 불법으로 보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고 무기력하게 기다리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용자가 법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났으면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강제하고, 아니면 불법파견이 확인되었으니 현대자동차 정

몽구 회장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답변을 드릴까요?

○**홍희덕 위원**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지도 결정은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내하청 노조는 직접적인 교섭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그런 이유……

○**홍희덕 위원** 장관님, 그 답변을……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두 번째는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달라든지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 중노위의 조정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행정지도 결정을 한 것으로……

○**홍희덕 위원** 2005년 중앙노동위원회는 또 상반된 판결을 했습니다,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리고 대법원에……

○**홍희덕 위원** 그리고 3월에 대법은 집단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개별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섭하라는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파기환송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법에서……

○**홍희덕 위원** 교섭하는 것하고 정규직화하는 것하고는 분리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은 지난 여름에 아까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제를 정착시킨다면서 근로감독 업무를 작파하고 노조와 사용자들을 감시하러 다닌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감시와 감독으로 타임오프를 위반한 사업주를 고발까지 했지요.

그런데 불법파견 사내하청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래서……

○**홍희덕 위원** 이번 비정규직 파업, 저는 90% 이상 노동부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가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희들이……

○**홍희덕 위원** 보수정당도 서민정책 운운하고 청와대도 친서민 말하는데 고용노동부는 도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파업만 하면 불법이라는 얘기

는 그렇게 앞장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용주들이 등에다 얹고, 얼마나 좋습니까? 노동자를 폄하하고 왜곡하고 불법집단으로 몰아서 탄압하게끔 노동부가 앞장서는 일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저희가……

○**홍희덕 위원** 원청과 비정규직 노조가 교섭하게 하고 그동안 부당노동행위, 지금 현장에 가보면 언론에는 사용자 노동자 같이 다쳐서 병원 실려 간다고 이렇게 보수언론에서 왜곡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얻어맞고 다쳐서 병원에 실려 가는 것은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것을 장관님 확실히 좀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인지 장관님께서 직접 나서 주기를 간곡하게 촉구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희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특히 폭력사태가 일어나서 양측이 고소 고발을 하게 된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합법인데 불법이라 하거나 불법인데 합법이라 하거나 그렇게 호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홍희덕 위원** 신중하게 불법과업…… 어느 대표적인 사업장에서 과업에 들어가든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지금까지 보면, 제가 목도했고 생생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설사 약간의 판단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노동부는 너무 앞장서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정성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 근로감독 전체 인력의 30% 정도를 13년간 끌어오던 타임오프의 연착륙을 위해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홍희덕 위원** 그래서 시간관계상…… 장관님, 이번 현대사태…… 대법원 판결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물론 절차상 고법 판결이 남아 있지만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고법에서 뒤집어질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시간 끌다 보면 노동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희 시간 끝 생각 없고요, 저희들……

○**홍희덕 위원** 좀 빨리 사태 해결에 장관께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우선 이런 불법 점거 상황 자체는 저희들이 해소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25개 업체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심층 실태조사를 통해서 고용노동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는 조사 결과를 보고 다시 또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홍희덕 위원**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지금 노동부의 예산심사 대체토론을 해야 되는데 현안질의하다 시간이 다 갔습니다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국가전략산업직종훈련, 올해 보니까 근 500억 가까이 예산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이 문제 많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결산 때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하고, 이것 예산소위에서 한번 심층적으로 따져 봐야 되겠다고요.

취업장려수당 마찬가지로입니다.

취업장려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얼마나 예산이 불어났습니까? 810%가 증가했어요. 결산 때 이렇게 지적받은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 지금 많습시다. 이것 다 서면으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 테니까 꼼꼼하게 좀 해 주시고.

글로벌취업지원 예산안 마찬가지로입니다. 전부 여야 위원들로부터 결산 때 따가운 질책을 받았던 사업들을 이렇게 개선하지 않고 몇 배씩 예산 증액해서 갖고 오는데 국회의 예산권을 뒤흔치고 이러는 겁니까? 심각합니다, 이것. 이 문제 예산소위에서 꼼꼼하게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수 위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영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제기한 것 중에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현장 투쟁위원회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신영수 위원**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신영수 위원** 그런데 장관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어떻게 처리하신다고 그랬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신영수 위원** 관계기관과 협의하신다고 그랬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신영수 위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것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팔로업을 못했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제가 실무자들한테 지금 후속조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그러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조치는 있었는데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관련기관에 위원님의 그런 자료를 전달을 하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신영수 위원** 관계기관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저희가 현재 조치를 하도록 요청만 해 놓고 그다음에 관계기관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저희들이 팔로업이 안 된 상태고요.
 ○**신영수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관님, 이 문제는 기존의 노동운동하고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를 반드시 추적을 해 보시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게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지금 현대차 비정규직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되어 현재 고법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신영수 위원** 아직 확정판결이 안 났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신영수 위원** 재심의 중인데 지금 비정규직 노조는 현재 현대차에다가 직접고용 요구를 하면서 불법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러니까 15일 현재 울산1공장에서 무단 점거한 이후에 매일 15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고 어제까지 1000억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소형차의 경우에는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신영수 위원** 제가 왜 아까 그런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합법적인 노동단체 외에 극렬한 이적단체까지 배후로 되어 있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 앞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배후가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저희들 아직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신영수 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 좀 해 보십시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동희오토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조직으로 결성을 하고 있는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 노조의 주장이 아무리 합당하다 하더라도 공장시설 점거는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불법입니다.
 ○**신영수 위원** 이것 지금 조속히 해소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 상태가 해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영수 위원** 정부가 즉각적으로 나서서 공장 점거를 해소하고 대화로 풀어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어쨌든 정부가 지금 팔짱을 끼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사법경찰당국 등도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불법 점거를 빨리 해소하라는 공문을 울산지청 그리고 천안지청, 전주지청이 해당 노조에 각각 보내고 사업장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신영수 위원** 장관님 답답하십니다. 공문 보낸다고 해소가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공식적으로 한 조치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하여

튼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비정규직 노조 외에 불법세력들이 같이 합세해서 정문 앞에서 지금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직까지 나서서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경찰에서는 지금 이것을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경찰도 배치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보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방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도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을 해서 오늘에까지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수 위원** 경찰이 지금 배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당국에서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자세로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진중한 고려 끝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신영수 위원** 장관께서는 지금 공문만 공식적으로 보냈다고 하시는데 경찰청에다가 경비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검토하시겠다는 게 긍정적인 겁니까, 그냥 답변만 넘어가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제가 답변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공권력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결정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때 해도 늦지 않은 것을 지금와 가지고 계속 이렇게 불법집회를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국가 공권력에 대한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정부의 직무유기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적단체까지 합세해서 지금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관계부처와 다시 협의를 해서 철저히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희들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새겨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이 문제는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 20개 신규사업 1594억 중에서 일반회계가 995억으로 62.4%에 해당하는데요.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제가 그 수치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신영수 위원** 예전에는 신규사업을 전반적으로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 중심으로 편성된 것은 적절한 편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칭찬해 주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신영수 위원** 그다음에 청년고용대책 관련 사업이 4707억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86.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2177억이 증가를 했는데요 지난 10월 14일 날 청년 내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래서 청년고용 문제는 국가고용정책의 일차적인 당면과제인데 예산의 대폭 확대는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편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신영수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칭찬해 주려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감사합니다.

○**신영수 위원** 중앙집권적인 고용정책에서 벗어나서 지역 주도의 일자리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고용지원 관련 사업이 많이 확대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잘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신영수 위원** 그다음에 여성의 출산·육아 지원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가적으로 여성 문제, 육아 문제 이 문제는 큰 문제기 때문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됐다고 보는데요, 몇 가지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

자 체류 지원을 위해서 전국의 주요 지역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고충상담, 한국어 교육, 문화지원행사라든지 국내생활 정착을 돕고 있지요? 그런데 전국 주요 지역에 8개소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신영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게, 그러니까 금년하고 똑같게 52억을 편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앞으로 점점 심각해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기 때문에 대도시 중심에 8개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중소도시 그다음에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공감합니다.

○신영수 위원 또 이게 지원 대상이 근로자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신영수 위원 그래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영세사업주인 경우에도 지원을 해서 근로자와 더불어서 영세사업주도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좋은 의견을 생각하면, 특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게 영세사업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도시 중심에서 또 사실 소지역 쪽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소지역센터 같은 쪽으로 개편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신영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8개를 거점센터로 하고 더 많이 한 30개 정도의 중소도시에 센터를 운영을 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고 할 경우에는 명실상부하게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 또 영세사업주를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신영수 위원 명칭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력지원센터로 해 가지고 명칭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대상을 근로자에 국한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바꾸는 것이 더 합리

적이라고 봅니다.

○신영수 위원 예, 그래서 예산도 편성을 좀 더 증액시켜 주고 명칭을 바꿔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신영수 위원님, 시간 딱 맞춰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의를 마치고 바로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찬열 위원 이찬열입니다.

장관님, 청년일자리 창출 항목 중에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 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운영, 이게 지금 없던 건데 새로 설립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이찬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할 일은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러니까 청년사회적기업가들을 저희들이 한 2000명 정도 육성을 해서 말하자면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도전정신 같은 것을 살려 가지고 취약 계층을 고용하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그렇지만 부족한 그런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매진하는 그런 것을 좀 적극 육성하려는 의지를 담은 겁니다.

○이찬열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런데 왜 사회적기업진흥원은 뭐 하러 설립을 또 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사회적기업이 아주 생소한 개념이고 아직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찬열 위원 아니, 지금 지자체에서 잘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들을 하는데 이것을 진흥원을 따로 설립해서 2000명을 육성한다? 이게 뭐 다른 생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금년 상반기에 이미 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가지고 저희들이 12월 달에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출범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

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굉장히 열심히들 해 주시는데 사실상 지속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사회적기업들이 처음에 좀 생성 단계에 초기에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이찬열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법이 통과가 돼서 설립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되는 데로 쓰시자고요. 이거 여기 청년일자리 만들어 주는 데가 중요한 건데 진흥원 설립해 가지고 또 거기서 뭐 일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진흥원에서는 사회적기업들과 예비사업적기업들이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 주고……

○이찬열 위원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은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홀로 서기 싫어서 안 서 지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지자체……

○이찬열 위원 지자체에서 열심히 노력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라는 자체가 그 지역에 맞게 특성화해서 지역 지자체에서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야만 가깝게 있는 실업자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래서 지자체가 할 수……

○이찬열 위원 그런데 그것을 중앙에다가 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고 만들어 갖고, 그러면 지자체 일 다 뺏어 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런 게 아니고요……

○이찬열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이원화시키겠다는 얘기에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전반적인 소프트웨어랄지 사회 전반에 걸친 네트워크랄지 또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는 이런 것 등등은 또 지자체가 할 수 없는 영역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자체와……

○이찬열 위원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면 지자체한테 그것을 교육을 시켜서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저희들이……

○이찬열 위원 아니, 173억 6500만 원을 신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 무슨 특수사업인지 요구안에서 조정안으로 그대로 다 1원 한 푼 깎아지도 않고 그대로 갔습니다. 이거 뭐 이것도 대통령 특명사항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이찬열 위원 그 법을 만드는 것은 알지요, 하는데 어떻게 요구안대로 조정안이 그대로 다 나갔나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 장관님이 노력하셔서 그런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아니, 제가 오니까 이게 이미 예산이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찬열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는 특별히 제가 더 잘한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용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도 흔쾌히 요구에 수용했기 때문에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시다.

○이찬열 위원 굳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또 청년사회적기업가를 만드는 데 360개 팀 2000명 규모, 이게 무슨 선거조직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아니, 지금 예비사업적기업……

○이찬열 위원 아니, 대한민국에서 청년이…… 굳이 어떻게 360개 팀 2000명한테만 이런 혜택을 주려고 생각을 하나 이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래 봐야 금액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한 팀에……

○이찬열 위원 금액은 이 금액을 설립을 안 하면, 이 금액 자체를 지자체에다 넘겨주면 2000명 아니라 5000명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실제로 이게 지자체로 다 가는 겁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진흥원은 설립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뭐 하러 기구를 또 설립을 해 갖고, 그냥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예산으로 내려 주면 되지 사업적기업진흥원 설립을 해서 거기서 왜 내려 주게 만드냐 이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사회적기업진흥원이 그러니까 이 사회적기업에 관한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누가 여기 파견 나갑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희들은 한 명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면 여기 진흥원장이 청년이예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아니요, 아직까지…… 공모를 해야 되는데요 청년을 원장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다고 청년이 안 된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분야에 경륜이나 노하우가 있고 덕망도 갖추고 그런 분이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 경륜이나 노하우는 고용노동부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지 대한민국에서 더 많은 분들이 또 누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분야라서 고용노동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적기업진흥원에는 가급, 현재까지는 아무도 안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방침이 세워져 있고 새로운 분들을 좀 공모……

○이찬열 위원 여기 이 자리는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임명은 제가 하게 돼 있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쳐서.

○이찬열 위원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 하게 돼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이찬열 위원 박재완 씨가 하는 게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렇습니다.

○이찬열 위원 아니, 이거 할 때까지 계속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하여튼 이것은 지자체에다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냥 통째로 넘겨주세요. 괜히 이거 만들어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거 뭐 보니까, 360개 팀 2000명 그러는 거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선거 때 쓰면 몰라도 조직 만드는 것하고 보이기는 똑같아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위원님,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이찬열 위원 오해가 아니라 제 생각이……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 2000명이 사회적기업진흥원 인원이 아니고요……

○이찬열 위원 그렇게 보인다 이런 말씀이예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이찬열 위원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지금 현대자동차 사태 관련해 갖고 강호돈 사장님 맞지요, 거기가? 강호돈 부사장이, 그분이 한 얘기 중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환원을 시키면 경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고용노동부장관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얘기하고 일반 대기업에서 얘기하는 노동유연성을 강조를 하는데 그 말뜻으로 보면 고용유연성보다는 임금 착취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지금 비정규직이 정규직하고 똑같이 일한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증명이 됐나?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라인이 비정규직이 파업을 하면 아무 관련 없이 돌아가야죠. 정규직이 파업을 했을 때는 생산라인이 중단이 되더라도 비정규직이 일을 하게 되면 비정규직이 파업을 해도 라인이 돌아가야 되는데 라인 서는 것은 비정규직이 할 때나 또 정규직이 할 때나 파업을 하면 라인은 같이 중단 말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일 내용은 똑같은 얘기 아니예요? 논리적으로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위원님이……

○이찬열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노동유연성, 고용유연성을 얘기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다 이거죠.

이 현대자동차 강호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사장이 하는 얘기에 의하면 이게 임금 차익에 의한 회사 이익창출이지 무슨 고용·노동유연성은 거기까지 가지도 못 하는 거지요. 이 임금을 어떻게든지 싸게 쥐 갖고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

려고 그러는 이런 어려운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이 강호돈 부사장님 같은 분들……

○**위원장 김성순** 이제 정리합시다.

○**이찬열 위원** 공식적으로 언론에다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을 영위를 못 한다, 이것 정말 정부에서도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천 위원** 강성천 위원입니다.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강성천 위원** 오전에 아까 회계 답변을 하실 적에 세출에 대한 그 부분 제가 재이월했을 경우 그때는 위법이, 불법이 아니냐고 했더니 불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강성천 위원** 그런데 그 아니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제가 관련 국가재정법하고 재정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살펴봤는데, 그 조문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 건의 경우 2008년도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고 공모에 의해서 민간 사업자를 모집했고 그래서 사업자와 계약을 했는데 사업 기간이 촉박해서 2009년도로 이 사업을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은 인정이 되고요. 그러나 그 계약……

○**강성천 위원** 그것은 이월했을 경우고요. 재이월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재정법 48조2항에 보면 지출 못한 경비와 부대경비는 재이월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 이월은 정당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 같고요. 이월했을 때 민간 사업자와 인력공단에서 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성과금은 그 사업 종료 후 취업이 12개월 동안 유지된 이후에 주기로 계약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강성천 위원** 장관님, 재이월의 경우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지금 국가재정법 48조2항에 보니까 제가 아까 장관님한테, 장관님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가서 다시 살펴봤더니 48조2항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2항2호 맞습니다.

○**강성천 위원** 2항에 그게 분명히 명시돼 있는 사항이니까 장관님이 그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2011년 청년 고용대책 관련 사업예산 규모가 5389억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강성천 위원** 잡영프라자(Job-Young Plaza) 사업예산이 92억 4400만 원으로 고용부가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서울청 및 서울서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2010년 10월 말 기준 민간 취업상담사 1인당 상담실적이 평균 75건입니다. 하루 평균 3.8건으로 저조한데 이것은 개선방안이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이게 7월부터 시작이 돼 가고요, 7월 달에는 39명이 이 잡영프라자를 통해서 취업을 했습니다마는 8월 달에 143명, 10월 달에는 238명으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렇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래서 올 10월까지 보시면, 7·8·9·10 녀 달을 하고 있는데 11월 달에 아직 집계 안 나왔습니다마는 초기에 조금 인지도가 낮고 해서 그렇기는 한데 계속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개선할 점은 많아서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통계청의 2010년 5월 청년·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대졸 청년의 경우 취업시 공개시험이 27.2%, 신문·인터넷 공모가 26.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업알선기

관 이용은 6.8%에 그치고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잡영프라자 시범사업도 알선 건수는 1만 2564건으로 많이 있지만 취업자는 4.8%인 603명에 불과하고, 사업비 대비 실적이 아주 부진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0년 10월 8일 기준으로 435명이 취업했는데 잡영프라자에서 제공한 취업 건수는 15%인 65건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고용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인터뷰를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취업서비스 기관을 이용한 게 얼마 안 된다 하는 그것은 5월 달 통계고요. 이게 7월 달에,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잡영프라자를 7월 달에 시작해 가지고 이제 닷 달 조금 지난 상황인데 저희가 볼 때는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취약한 점등을 좀 고치고 하면 충분히……

○**강성천 위원** 지금 장관님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좋아지는 그 온도 차가 아직 미지근하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잡영프라자 사업은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으로 정작 수요자인 대졸 청년의 선호도가 아주 낮고요. 실효성 담보가 안 되는 사업으로 보거든요. 잡영프라자 사업을 12개에서 10개로 줄여 예산 삭감으로 확보된 15억 4000만 원을, 예산 15억 4000을 확보해 가지고 성과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희들이 그런 따가운 지적 등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조사도 해 보니까 일본도 금년 9월에 대졸 청년층을 대상으로 헬로우 워크(Hello Work)라고 해서 우리를 따라서 또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선진국도 이런, 지난번 G20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에서도 청년실업에 관한 보고서를 보시면 한국의 잡영프라자와 같은 것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보고서에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것이 이제 닷 달 했는데, 서울에서만 한 번 해 봤는데 오히려 지방대학 쪽에 더 절실한 게 아니냐 해서 지방 쪽으로 좀 늘리려는 계획인데 위원님 조금만, 1년만 더 한 번 밀어 주시면 저희들이 크게 활성화되도록 키워 보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강성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연평도 해안포대에서 북한군이 한 200발 정도 대포를 쏘서 연평도에 상당수가 떨어지고 연평도 주민들이 대피하고 이렇게 비상사태가, 일종의 비상사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인천 지역에 사무실을 두신 기관장 분들은 지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산하 기관장님들 가셔서 기관을 장악하시지요. 장관하고 참모들, 간부들은 남아 계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수 위원** 장관님,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신영수 위원** 지금 상용직근로자의 28%가 제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은퇴시기를 늦추는 방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신영수 위원** 정년 법제화도 공론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무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신영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임금피크제 확산을 통해 가지고 임금체제 개편, 고용연장 이런 효과를 노리는데 여기서 지금 본 위원은 그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장관님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내년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예산은 제 기억에 124억 원인가를 반영해서, 이게 올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처럼 올해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베이비 부머(baby boomer)들이 퇴직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잠재수요는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2배, 3배 이렇게 늘렸을 때 또 불용이 될 가능성 이런 등도 걱정이 되어서 우선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부족하면 다른 대책을 또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신영수 위원** 사실 국회에서 예산을 계속 증액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책을 실효성 있게 할 경우에는 예산

도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124억은 물론 전년보다 31% 증액을 했는데 사람 수로 따지면 3027명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맞습니다.

○**신영수 위원** 지금 베이비붐 세대 인원을 311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11만에 3027명인 경우에는 0.1%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정책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지금 본 위원의 질문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재원의 한계 등등이 있어서 이런 정도로 했다는 말씀을……

○**신영수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이 적절하다고 제가 본질문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이런 문제에 대비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동의합니다.

○**신영수 위원**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31%입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점 수가 많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신영수 위원** 인구 대비해 가지고 미국에 비해서 6.8배에 이릅니다. 이 원인은 뭐니까? 다 퇴직한 다음에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음식점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우리나라의 문화 이런 것까지도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신영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다가 많은 수가 또 문을 닫고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많기 위해서는 공공 영역에서의 일자리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공헌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있습니다.

○**신영수 위원**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너무 금액도 작고 실효성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지금 고용노동부 전반적으로 보면 이 정책이 백화점 식으로 이루어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동감합니다.

○**신영수 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센터에 가 봐도 말입니다.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장차 다가올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옳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난 7월에 저희들이 정부부처의 일자리 지원 사업 202개를 150개 정도로 통폐합하는 노력은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으로는 미흡합니다만 계속해서 통폐합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신영수 위원** 더 줄여서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같은 것은 좀 지양하고 실효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은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제가 왜 전시행정으로 보는가 하면 주로 자원봉사 활동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고요. 교통수당하고 소정의 참여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활용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당을 얼마 주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월 30만 원,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신영수 위원** 그렇습니다. 30만 원입니다. 이 30만 원 가지고 사실은 교통비도 잘 안 나오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래서 이분들은 아주 절실하게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사회공헌을 보람으로 여기고 자기가 가진 노하우나 경륜을 다른 어려운 사람한테 돌려준다,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다 보니 월 30만 원 정도의 실비보상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수 위원** 개념을 좀 달리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세대들은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좀 오래 삽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기에는 사회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지적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에 국한하지 말고 전문성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국

가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그 기간도 5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5개월만 자원 봉사하고 나머지는 집에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이 사업은 일종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유희인력들에게 ‘그냥 택에 계시지 말고 공동체나 나라를 위해서 보람이 있는 일을 하시고 자부심을 가져 달라’ 하는 그런 마중물 성격으로 기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영수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이걸 지금 할 경우에…… 당초 목표치가 1000명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신영수 위원 대한민국에서 1000명 가지고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정책이 좋은 거니까 이것을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다른 예산을 재조정해서라도 이것이 국가적으로 좀 실효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장관께서 정책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신영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조해진 위원 예.

○위원장 김성순 예, 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장관님, 조금 전에 강성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잡영프라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92억을 편성했는데 이게 시범사업 단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이제 시범사업을 서울의 두 군데를 하다가 지방으로까지 좀 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본 걸로 봐도 이 시범사업에서 크게 그렇게 성과가, 평가에 따라서는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평가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던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현재 녀 달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이게 활성화되는 추이가 좀 눈에 띄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저희들이 이제 본격화 좀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조해진 위원 저는 이 취지 자체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고용 미스매치가 참 고질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뭔가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시도해 보고 특히 이제 직접 컨설턴트들이 이 대졸자들 만나 가지고 대화해 보고 또 알선해 주고 하는 건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노력 중에 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효과가 조금, 좀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조금 더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연말, 지금 녀 달 실적이 나왔고 연말까지 되면 한 6개월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편성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마구 헤프게 쓰는 게 아니고 시범사업 단계를 좀 더 연장을 할 건지 아니면 바로 본격화할 건지를 상임위에도 좀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는 방법도 하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조해진 위원 그 예산범위 안에서 한 몇 달,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금 더 해 보고 성과를 보고 나머지 예산까지 더 확대해서 쓰시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부대의견 같은 걸로 만약에 달아 주신다면 저희가 그걸 집행할 때 최대한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삭감을 해 버리면 나중에 저희들이 아이고, 상당히 성과가 있는데……

○조해진 위원 저는 실제로 삭감은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성과가 있는데 확산할 방법이 없고 특히 지방대학들이 상당히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좀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조해진 위원 나중에 예산소위 때 우리 소위원장님들한테 그 녀 달 동안의 성과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예.

그리고 잡영프라자와 마찬가지로 카테고리에 들어 있는 게 전체적으로 청년고용대책이 신규사업 중에 이것도 들어 있고 또 하나가 취업사관학교 사업이 들어 있는데 이제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취업하게 해 준다는 건데 이게 청소년 대상이 맞습니까? 성인은 포함 안 되고 청소년만 포함되는 게 맞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희들이 그러니까 고졸 이하에서 학교를 안 다니고 자퇴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른바 위기 청소년이라고 그러니다. 학교 바깥에 있는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사회복귀도 하고 건강한 직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조해진 위원** 이게 여성가족부에도 보니까 이 청소년 보호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립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이 이것하고 좀 중복되지 않나 하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이렇게, 저희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여성가족부에서 1단계 말하자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이 위기 청소년들에게 다시 건강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의지라든지 희망, 용기 이런 걸 북돋아 주는 단계까지가 여성가족부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 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인 직업훈련을 시키고 직업을 찾아주고 하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100명 정도만 직업교육을 시키고 취업 알선하고 합숙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취업을 성사시키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하는 2단계 본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데 그 지원대상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위기 청소년 자립지원 단체……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프로그램 수요자, 수요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조해진 위원** 단체에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아니고요. 여가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다시 100명을 뽑아 가지고 위탁을 줘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취업 알선까지 하겠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하는 이 자립지원 사업에는 그 취업이나 이런 건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안 들어가 있고 정상적인 뭐랄까요, 뭐 가출을 했다든지 학교를

자퇴했다든지 비행을 저질렀다든지, 이런 청소년들을 모아서 거기는 일반적인 윤리의 무슨 의식이랄까, 근로의욕, 희망, 꿈, 용기, 이런 것 등을 심어주는 프로그램까지가 여성가족부가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폴리텍대학 예산 관계에서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정규직 전환 교사들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지급하는 체제로 바꾸는 데는 내년도에 한 55억 정도 들던데 그게 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007년도부터 폴리텍대학 안에 장애인 편의시설 작업을 계속 해 왔는데 처음에 폴리텍대학이 설립될 당시에 이 건축 기준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걸 이제 새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해 온 것 같아요, 7년도, 8년도, 9년도.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열심히는 해 왔습시다, 꾸준히.

○**조해진 위원** 예,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해마다 조금씩 나눠서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 잡힌 것은 올해 예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학교 측이……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게 연차적으로 쪽 진행이 돼 와 가지고 큰 덩치의 신규 투자가 거의 끝이 나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외견상 보기에 예산금액이 많이 준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약화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꾸준히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 왔습시다만 보건복지부가 정한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못 미치더라고요. 적정 설치율이 55.7% 정도 되는데 우리는 53% 정도 되어 있어서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정한 그 설치기준까지는 어쨌든 맞추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마무리 이제 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소위 심의과정에서 현재 7억 5000 정도인가를 깎았는데 작년 수준으로는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하여튼 저희들이 지적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예.

○**위원장 김성순** 조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희덕 위원** 장관님, 아까 제가 결산에서 지적된 부분, 예산 관련해서 통틀어서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장려수당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인력 충원에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홍희덕 위원** 그런데 2011년 예산안에서 이 사업이 전년도 대비, 310억인데요. 810%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여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혹시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홍희덕 위원** 예, 좋습니다. 왜 이런 건지 도무지……

간단하게 좀 답변하세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나영돈** 고용서비스정책관 나영돈입니다.

취업장려수당은 지난해에는 추경에 준비가 다소 미흡한 상태에서 실적이 다소 부진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취업하고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켜보았다가 고용 유지되면 주다 보니까 내년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홍희덕 위원** 예.

얼마 전에 지나간 2009년 결산에서 어떤 지적 받았는지 알고 있지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나영돈** 예, 알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지적사항으로 제도개선, 중도 탈락도 너무 많고 수요 자체가 없어 예산집행도 되지 않으니 총체적으로 점검한 뒤에 과도한 예산편성을 지양하라고 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좀 잘된다 하고, 제가 뭐 그건 구체적으로 좀 보고를 받아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지적받았던 사항을 이렇게 하면 국회의……

들어주세요.

결산심의권, 예산 심의권, 확정권을 침해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국회가 결산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중간에 잠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상당히 저희들이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실적이 호전이 되고 중도 탈락률은 확 줄고 집행실적이 크게 늘어서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홍희덕 위원** 예, 그런 근거도 정확하게 내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글로벌 취업지원 예산, 장관님, 글로벌 취업지원 예산이 2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 매년 국회가 열릴 때마다 실효성 없다, 심지어는 차라리 그 돈을 나누어 주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사업입니다.

인원도 6100명에서 450명 더 늘리고 연수비도 400만 원으로 늘리고, 그런데 장관, 도대체 이렇게 하면 실제로 몇 명이나 해외에 취업을 할 것 같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올해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지금 천 한……

그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천이삼백명 정도가 됐고요.

○**홍희덕 위원** 예, 천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게 지난 3년간 됐던 숫자를 넘어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 추세로 보면 내년에 상당히 크게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어차피 우리가 G20 국가 가운데 국토면적이 제일 좁은 이런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활로가 되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 실적이 2007년에 48%, 08년에 26%, 09년 24%,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해마다 매년 예산 대폭 늘리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보냈지만 정작 취업을 하는 인원은 1000명 내외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요. 이대로 진행하게 된다면 내년에 취업 성공률이 22%까지 또 내려갈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무작정 예산만 늘린다고 다가 아니지요.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들을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나

오지 않으니까 해외에 취업을 시켜 경험도 쌓고 실력도 키우고, 좋습니다. 하지만 착실한 준비를 통해서 해외의 취업루트도 정확하게 트고 기업연계네트워크도 만들어 가면서 진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옳으신 지적입니다.

○홍희덕 위원 무작정 청년들만 외국으로 그냥 보낸다고 이견 능사가 아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의 지나친 증액에 대한 감액을 좀 요청할 겁니다.

장관님도 신중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위원님 지적하신 이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홍희덕 위원 갑자기…… 이제 이견 실적이 몇 해간 나와 있는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런데 그것이 조금 뭐 상향으로 이렇게 근래에 와서 좋아진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까마는 거기에 비해서 지금 노동부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증액한 겁니다.

그리고 결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결산 받은 지 얼마 됩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좋아졌다는 건지……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건 사실입니다.

○홍희덕 위원 어안이 좀 병병하고 신뢰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 몇 개월 사이에 정확하게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그러면 그것이 과연 그 몇 개월 사이에 호전됐다고 해서 그것이 내년에 꼭 그렇게 예상했던 그 증액만큼의 효과를 과연 명확하게 거둘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그런 자료 정확하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홍희덕 위원 갑자기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신뢰가 가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올해 들어서……

○홍희덕 위원 지적한 지가, 잉크도 마르지 않

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러니까 위원님, 결산할 때에는 2009년 실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2010년 10개월 동안 실적까지 말씀드린 건데요. 확실히 좋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크게 좋아졌습니다.

○홍희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영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 김성순 예, 의사진행 얘기하세요.

○홍영표 위원 민주당 간사 홍영표입니다.

지금 백령도에서 아마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고 우리 군과 주민의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지금 소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노동부장관님은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국가 안보에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추가질의 없이 좀 마무리 짓는 게 어떤가 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종결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회부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예정된 일정대로 예산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 사·보임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소위원이신 이미경 위원님의 해외 출장 관계로 11월 25일 하루 동안 이찬열 위원께서 소위원으로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면질의를 내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정부 측에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 전까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12분)

○위원장 김성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에서 제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존경하는 김성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금의 중복 수급을 예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자활급여 수급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금의 중복 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둘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셋째 자활급여 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에 참가하여 일을 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고용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되 자활근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하고 실업급여사업은 제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고용노동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서 현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심사는 회의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심사일정을 정해서 차후 알려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 성 천	김 성 순	김 용 구	신 영 수
이 미 경	이 범 관	이 정 선	이 찬 열
조 해 진	주 호 영	홍 영 표	홍 희 덕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 병 길
전 문 위 원	원 창 희

○정부측 참석자

고용노동부				
장 관	박 재 완			
고 용 정 책 실 장	엄 현 택			
노 사 정 책 실 장	이 재 갑			
기 획 조 정 실 장	조 재 정			
노 사 시 장 정 책 관	이 재 흥			
인 력 수 급 정 책 관	임 무 송			
직 업 능 력 정 책 관	정 지 원			
직 부 대 리				
고 용 평 등 정 책 관	권 영 순			
고 용 서 비 스 정 책 관	나 영 돈			
노 사 협 력 정 책 관	전 운 배			
근 로 기 준 국 정 책 관	정 현 옥			
산 업 안 전 보 건 정 책 관	김 윤 배			
공 공 노 사 정 책 관	이 성 기			
국 제 협 력 관	한 창 훈			
대 변 인	박 종 길			
감 사 관	정 철 균			
경 제 사 회 발 전 노 사 정 위 원 장	최 중 태			
중 앙 노 동 위 원 장	정 종 수			
근 로 복 지 공 단 이 사 장	신 영 철			
한 국 신 업 인 력 공 단 이 사 장	유 재 섭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이 사 장	노 민 기			
한 국 장 애 인 고 용 공 단 이 사 장 직 무 대 행	김 종 진			
한 국 고 용 정 보 원 장	정 인 수			
학 교 법 인 한 국 풀 리 택 이 사 장	허 병 기			
한 국 기 술 교 육 대 학 교 총 장	전 운 기			

【보고사항】**○의안 회부****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8 정부 제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9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 9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2010. 11. 12 정의화·이명수·김을동·이사철·
여상규·안규백·황영철·박영아·김정훈·
김학송 의원 발의)

11월 15일 회부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16 정부 제출)

11월 17일 회부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2010. 11. 17 홍희덕·강기갑·곽정숙·권영길·
유원일·이미경·이정희·조승수·최문순·
홍영표 의원 발의)**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수 의원 대표
발의)**(2010. 11. 17 신영수·홍영표·강성천·이정선·
이종혁·박대해·이애주·강길부·강석호·
안홍준·고승덕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8일 회부됨

○의견 제시**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8 정부 제출)

11월 9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견 제시

○의안 철회**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
발의)**(2010. 5. 4 조원진·김재윤·정희수·이두아·
이명규·이사철·이진복·이한성·정병국·
정해걸 의원 발의)

11월 10일 발의자 철회 요구